

독서지도사

2급

김소옥 교수

1강. 독서지도의 목표와 내용

1. 독서지도의 의의와 목적

1) 독서지도의 의의

- 첫째, 독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책을 읽는 동안에 사물을 보는 눈, 생각하는 관점을 배우게 되며 이야기 속에서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 둘째, 독서는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자아실현의 의지를 길러준다. 독서를 통하여 얻어지는 언어능력이야말로 기초 학력 중에서 가장 우선해서 길러야 할 중요한 학력이다. 또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독서를 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하게 된다.
- 셋째, 독서는 자율 및 학습방법을 익혀주며 평생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적응하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비판력을 기를으로써 평생교육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2) 독서지도의 목적

-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며, 대답은 기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며, 글을 쓰는 것은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
- 이 말은 인간은 생각하기 위한 지식을 독서에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독서에서 배우고, 독서와 더불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빠르고 폭넓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 나아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 즉 글의 내용을 읽는 이의 입장에 서서 주체적으로 독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독서지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독서지도의 목표와 내용

1) 독서지도의 목표

(1) 정보의 획득과 이해를 위한 독서

- 학생들은 독서 활동을 통하여 자료, 사실,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고,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한 개념을 일반화 할 수 있어야 하며, 독서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교과서, 비문학적 서적, 참고 서적, 영상자료, 전자 서적 등에 제시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서로 다른 독서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비교하고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정보의 선정과 조직과 범주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독서 자료에 제시된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기존 지식 및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
- ⑥ 독서 자료의 형식, 배열, 진술 수준 등 글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독서

-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과 자신의 실제적인 생활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작품에 드러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작품에 대한 반응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다양한 저자, 주제, 장르의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② 주요 문학 장르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그 작품에 대해 토의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은유, 상징, 직유, 아이러니, 절정, 갈등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의 주요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들 구성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의미의 복합적인 수준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낭독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장르의 특성과 작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좋은 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독서

- 학생들은 독서 활동을 통하여 독서 자료에 제시된 아이디어, 경험, 정보, 주요 문제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독서 자료에 제시된 주요 문제, 정보, 아이디어, 경험 등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교과서, 일반서적, 공공문서, 서평, 논설문 등에 나타난 정보, 아이디어, 조직 방식,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정확성, 객관성, 이해성 등의 평가 범주를 사용하여 장르, 내용, 목적 등의 측면에서 독서 자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개인의 관심, 흥미,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독서 자료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논리성, 명료성, 이해성, 간결성, 독창성 등의 측면에서 글을 평가하고,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독서

- 학생들은 독서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효과적이고도 폭넓은 사회적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독서 자료에 제시된 인물들과의 내적인 대화를 통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친구, 친지, 이웃사람, 저자우편 이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편지, 엽서, 전자 우편 등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글쓴이의 아이디어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사용된 언어와 표현 방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토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글에 사용된 표현기법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2) 독서지도의 내용**(1) 정보의 획득과 이해를 위한 독서**

① 독서 자료

- 교과서, 전기문, 자서전, 수필, 참고 자료, 그림과 도표, 사진 등의 설명 자료, 신문, 잡지, 원전, 전자 문서, 인터넷 사이트의 독서 자료 읽기

② 독서 활동

-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기
- 설명적인 글에 제시된 자료, 사실, 아이디어 등을 해석하기 위하여 규정하기, 분류하기, 추론하기 등과 같은 사고 기능 적용하기
-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지시나 절차를 읽고 따라 하기
- 독서 자료의 내용과 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설명적인 독서 자료를 개관하고,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기
-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 색인을 이용하고,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 위하여 연관되는 사건을 활용하기
- 설명적인 글을 이해하기 위하여 글의 구조와 내용과 어휘에 대한 기존 지식 활용하기
- 상호 연관성이 있는 정보와 없는 정보 구별하기
- 생략된 정보, 모순이 되는 정보, 불명확한 정보 등을 식별하기
- 설명적인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 만들기
- 여러 가지 상이한 독서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비교하거나 대조하기
- 하나 이상의 독서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요약하고, 결합하고 범주화하기
-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독서 경험과 연관 짓기
-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와 암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추론을 생성하기
-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기

(2)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독서**① 독서 자료**

- 상상적인 인쇄 자료나 영상 자료를 읽거나 보고 해석하기 위하여 단편 소설, 장편소설, 신화와 전설, 희곡, 시나리오, 서정시와 서사시, 영상 작품, 전자 서적 등의 독서 자료 읽기

② 독서 활동

- 다양한 장르, 저자, 주제 등에 관한 작품을 목록하거나 낭독하기
- 하나의 작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 작품 속에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 구성, 배경, 주제, 대화 등을 해석하기
-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주제 인식하기
- 저자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저자가 사용한 표현 방식 이해하기
- 시를 해석하기 위하여 시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질문 도출하기
-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의 동기, 사건의 원인, 배경의 중요성 등을 실제 생활 속의 인물, 사건, 장소 등과 비교하기
-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학 작품의 사회적 배경 및 역사적 배경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특성 이해하기
- 인쇄 자료로 된 문학 작품과 영상 자료로 된 문학 작품 비교하기

(3)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독서**① 독서 자료**

- 정보, 아이디어, 의견, 주요 문제, 주제, 경험 등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문학작품, 과학적인 글, 역사적인 글,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인 문서, 신문 기사와 논설, 잡지 기사와 논평, 서평, 광고, 전자 문서 등의 독서자료 읽기

② 독서 활동

- 독서 자료에 제시된 정보, 아이디어, 주제, 의견, 경험 등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하기

-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정보 식별하기
- 지은이의 배경과 자격 고려하기
- 지은이의 가정과 신념과 의도와 편견 등에 대하여 질문 제기 하기
-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예시, 세부 내용, 이유 등을 평가하기
-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 논리상의 오류 식별하기
-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과 숨겨진 내용 구별하기
- 선전하는 내용을 식별하고 그 효과 평가하기
- 설득을 위하여 글쓴이가 사용한 표현 기법 식별하기(정서적 호소, 윤리적 호소 등)
- 독서 자료에 나오는 서로 다른 관점 식별하기
- 문화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과 그것이 글의 내용에 미친 영향 식별하기
- 여러 가지 수준의 의미 식별하기
- 문학적, 정치적, 개인적 관점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보고, 그 기준을 이용하여 독서 자료 평가하기
- 독서 자료에 제시된 아이디어, 정보, 의견, 주요 문제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관점이 미치는 영향 인식하기
- 독서 자료를 끝까지 읽을 때까지 독서 자료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

(4)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독서

① 독서 자료

- 개인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수립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정을 나누는 편지, 엽서, 메모, 노트, 메시지, 출판된 편지와 일기, 신문과 잡지의 기사, 친구 사이의 전자 편지 등의 독서 자료 읽기

② 독서 활동

- 친구나 어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 독서 경험 공유하기(소집단이나 짝과 함께 낭독하거나 묵독하기)
- 글쓴이 나이, 성, 사회적 지위,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기
- 사회적 의사소통에 적합한 표현 방식 인식하기(비공식적이거나 특정 문화와 연관되는 표현방식, 전자 편지, 예절 등)

2강. 독서지도의 원리와 유형

1. 독서지도의 형태

1) 독서지도의 필요성

-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을 방지하고 능동적인 독서습관을 기르게 한다.
- 올바른 독서자료 선택과 독서 흥미의 편향성을 막는다.
- 독해력과 감상력을 높여 독서 효과를 배가시킨다.
- 독서 내용을 실생활에 응용하도록 배가시킨다.
- 독서 곤란아를 예방하고 치료한다.

2) 독서지도 시 고려할 점

- 독서는 타인의 강요에 의한 활동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
- 독서지도는 독서에 적응하는 것이 수단이며 궁극의 목적은 생활지도에 있다는 것.
- 독서에 의한 생활지도는 자기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교사는 조언이나 격려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열쇠는 피교육자에게 있다는 것.
- 획일적인 틀에 개인을 맞춰 넣은 것이 아니고 개인차에 알맞은 독서인격을 형성시키는 것.
- 독서 지도의 원리에 의거하여 계획적인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

3) 독서지도의 형태

- 자유 독서: 자유로이 선택해 자발적으로 폭넓게 독서하는 것을 장려한다.
- 과제 독서: 각종 도서 목록을 제시하여 독서 재료 선택을 원조한다.
- 독서 상담: 학생들의 독서에 관한 상담에 응한다.
- 독서회: 동호자를 조직하여 함께 독서하도록 한다.
- 독서 발표회: 독서 감상을 상호간에 발표하도록 한다.
- 독서 토론회: 독서에 관한 의견을 교환시키고 지도 교사의 말씀을 듣는다.
- 독서일지: 독서에 관한 일기를 쓰도록 한다.
- 독서 감상문: 독후 감상이나 서평을 쓰도록 한다.
- 독서 연극(모의재판, 독서 구연 포함) 발표회: 독후감 또는 내용을 연극(모의재판, 독서 구연)으로 발표하도록 한다.
- 독서 안내: 각종 도서 목록을 제시해 독서 재료 선택을 원조한다.
- 독서 퀴즈 대회: 독후감 또는 내용을 퀴즈 대회를 열도록 한다.
- 시청각적 보조: 영화, 음반, 게시 등을 이용해 독서생활을 지도한다.
- 견학: 독서에 관한 시설을 견학시킨다.

2. 독서지도의 원리

1) 독서지도의 원리

(1) 동기의 원리(자발성의 원리)

- 독서는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선택의 원리

- 독서 재료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게 준비하여 그 상담에 응함과 아울러 점차적으로 자주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 선택의 방법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3) 능력의 원리

- 학생의 독서 능력에 알맞은 독서 재료를 제공하여 독서 능력을 보다 발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독서 능력 진단을 실시하여 발견된 개인차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흥미의 원리

- 독서에 대한 흥미를 길러 그 흥미와 관련된 생활의 흥미를 여러 방면에서 조화롭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5) 개성화의 원리

- 독서를 통하여 자아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개성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개성을 신장시키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6) 환경의 원리

- 학생의 생활환경을 정리하여 보다 좋은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7) 목적의 원리

- 독서의 목적을 의식하고 그 목적에 맞추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기 쉽다. 따라서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독서 목적을 확인시키도록 한다.

(8) 통합의 원리

- 독서를 생활로부터 유리시키지 않고 독서 이외의 모든 활동과 통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격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9) 사회화의 원리

- 독서는 개인적 활동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활이 고립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그러한 폐단을 막고 더불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0) 평가의 원리

- 지도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에 의하여 목적 실현을 확인하고 지도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도 자기 평가를 하게 하여 독서 생활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11) 치료의 원리

- 독서의 발달이 지체되거나 인격적인 결함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독서를 통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법

- 독해의 기능과 사고 과정의 연관성 중시
- 설명, 시범, 독해 연습, 강화 등의 단계를 밟는 직접 교수법 적용
- 독해 기능과 글 내용의 연관성 중시
- 말하기 듣기 쓰기 등과의 유기적 연계
- 글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수업 모형 적용
-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독서 습관 및 태도 강조
- 독서 습관 및 태도의 진단과 진단 결과의 적극적 활용
- 독서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점검 및 평가 활동 강조
- 학생들의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활동 및 질문 권장
- 글의 내용 주입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입장에서 독서 활동 강조
- 다양하고 풍부한 읽을거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독서 기회 부여

3) 독서지도 방법의 유형

(1) 지도 대상자 수에 의한 유형

- 독서지도의 대상자 수에 따라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개별지도’는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각기 개별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해 지도자와 개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집단지도’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두 가지 지도방향이 있다. ① 첫째는 집단을 하나의 개체로 보아 직접 그 자체를 지도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고, ② 둘째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이 지도를 전체 속에서 지도하는 경우다. 전자는 능력이나 흥미가 같은 동질의 집단으로 편성하거나 또는 공통의 문제를 지닌 학생을 집단으로 해 전원에게 일체지도를 가한다.

(2) 지도대상자 종류에 의한 유형

- 지도대상자 종류에 따라 ‘도입적 지도’는 독서활동에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를 말하며, ‘전개적 지도’는 독서에 경험은 있지만 그 능력이나 흥미를 더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를 말하며, ‘치료적 지도’는 위의 두 가지 지도에서 발견된 독서활동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를 말한다.

(3) 독서활동단계에 의한 유형

- 독서활동의 어느 단계를 지도할 것인가에 따라 ‘독서 전 지도’, ‘독서 중 지도’, ‘독후 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독서 전 지도’는 독서의 동기 조성, 선택 및 기타 예비 지식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며, ‘독서 중 지도’는 의미 이해의 조력, 진도의 통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도이며, ‘독후 지도’는 읽었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끝맺음, 인상의 심화, 생활에 적응, 인간 형성으로의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4) 독서 재료의 종류에 의한 유형

- 독서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전기 지도’, ‘교양서 지도’, ‘과학서 지도’, ‘오락서 지도’ 등으로 나누어 그 재료에 맞는 지도가 세분화된다.

(5) 독서 재료의 지정방법에 의한 유형

- ‘자유 독서’는 독서 재료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해 지도하는 방법이고, ‘과제독서’는 교육상 필요한 특정 도서 재료를 지정하여 지도하는 방법이다.

(6) 독서능력 요인에 의한 유형

- 이 유형은 ‘읽기 지도’와 ‘독해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읽기지도’는 문자, 어구, 문법 등에 중점을 두어 독서능력의 기초적인 기술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이며, ‘독해지도’는 문장 전체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둔 지도로, 이들은 주로 국어 교육에 포함되는 지도이다.

3강. 독서교육의 원리와 내용

1. 독서교육의 원리

1) 자발성의 원리

- 독자로 하여금 독서를 하게 하는 원동력은 독서 동기유발에 있다. 독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독서를 위한 정신집중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② 독서는 왜 필요한가를 이해·설득한다.
- ③ 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추천을 한다.(책의 개요 소개, 거듭된 출판, 전문가의 추천, 읽은 선배 독자의 성공담, 베스트셀러 등)
- ④ 이 책을 읽으면 어떤 교훈과 사물(사실)에 대한 새로운 내용, 이론, 아이디어 패턴, 미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 ⑤ 이 책을 읽으면 어떤 흥미, 맛, 새로운 경험이나 여행, 인생의 진미, 새로운 개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 ⑥ 독서의 과정이나 종료 후에 독후감을 적어 귀감으로 삼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 ⑦ 독서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토의, 토론, 워크숍, 상찬, 평가회 등)

2) 독자 수준의 원리

-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정도, 개인차에 맞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책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읽도록 하지 않고 학습내용을 쉽게 표현한 만화에서부터 깊이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세계문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읽도록 지도하거나 자신의 흥미와 수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책들 속에서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게 할 수도 있다.

3) 책 선택의 원리

- 독서교육은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양서를 골라 읽게 지도함으로써 독서가 독자에게 의의 있는 일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책을 선택하여 진전이 없는 학생이나 자신의 수준보다 쉬운 책을 선택하여 손쉽게 읽어버리는 학생들은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양서를 골라 읽게 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게시판에 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고 추천도서를 소개하는 것도 좋다.

4) 독서환경 조성의 원리

-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아직 가치관의 확립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다.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는 그들의 태도나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바른 태도나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조성해 주어야 한다.

- 독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에 좀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에서 늘 책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항상 생활하는 공간에서 독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독서 목표를 갖게 하며 독서의 의의를 느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독서교육은 늘 생활주변에서 책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5) 통합의 원리

- 독서교육에서의 통합이란 언어영역의 통합 뿐 아니라 문학영역과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과목 간의 통합을 일컫는 것으로 범교과적인 성격을 띤다. 통합적 독서교육은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의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동원해 텍스트와 의사소통 하거나 관련 자료를 활용한 글의 이해와 감상을 쓰고 발표하는 표현활동교육으로 이루어진다.

(1) 내용면

- 독서한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통합, 독서 내용과 관련 교과를 연결하는 통합, 독서한 내용을 실제경험과 연결하는 통합

(2) 형식면

- 언어기능 즉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통합, 문학의 갈래 간 통합, 언어와 다른 예술과의 통합, 다른 매체(신문, TV, 비디오 등)와의 통합, 다른 양식(연극, 재판, 청문회, 광고 등)과의 통합

2. 독서교육의 내용

1) 인지적 영역

- 인지적 영역의 교육 내용은 문자의 해독, 어휘, 글 이해로 이루어진다.

(1) 문자의 해독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글자와 단어를 빨리 확인하고 소리 내어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음독 훈련은 문자 해독 훈련에 좋은 방법이다. 문자의 지도에서는 문자의 형태, 음가, 문자 해독,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기 등이 중요 내용이 된다.

(2) 어휘는 평생 학습해야 할 교육 내용이다. 글을 읽을 때 글에 나오는 어휘를 모르게 되면 독해에 큰 지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휘 교육은 평상시에 많이 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독서지도가 어휘 지도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는 어휘의 국어시간이나 독서시간에 배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교과시간이나 일상의 읽기에서 배운 것이다. 지도내용은 어휘 그 자체가 아니라 어휘 학습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3) 글 이해는 다시 글의 구조 이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한 이해, 초인지적 기능이나 전략에 의한 글 이해로 세분화된다.

① 독서교육에는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도 포함되어야 한다. 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글의 형식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글의 내용구조이다.

- 글의 형식은 지금까지 국어시간에 많이 지도한 문종의 형식을 말한다.
- 글의 내용구조는 글의 내용의 조직 구조를 말한다. 글 내용구조는 원인을 제시하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원인-결과’ 구조, 어떤 중요한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대한 자세한 속성을 제시하는 ‘저의-속성’ 구조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② 독서과정에서 독자의 배경지식은 큰 역할을 한다. 배경지식이 없이는 독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서지도에서 배경지식을 지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세상 지식을 모두 지도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배경지식 지도는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에게 배경지식을 알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지식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없으면 스스로 배경지식을 찾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③ 초인지는 삶에 대한 삶을 말한다. 따라서 초인지적 기능이나 전략이란 스스로의 삶의 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나 전략을 말한다. 독해과정에서 이해가 순조로울 때에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를 알아차리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기능이나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다. 초인지적 기능이나 전략은 매우 고급 수준의 독서능력이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도가 가능하고 학습도 가능한 것이다.

2) 정의적 영역

- 글을 읽으면서 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 측면이다. 그러나 독서에서는 글 내용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더 알고 싶어 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 내용을 통해 새로운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모두 정의적 측면에 해당된다.

- 인지적 측면의 지도는 교사의 지도 그리고 학생의 연습으로 쉽게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적 측면은 독자 스스로의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지도로 이를 이룰 수는 없다.

-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읽은 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하고 협의나 토론을 해보게 하고 그 유용성이나 가치를 판단하게 해보는 것은 정의적 교육의 좋은 방법이 된다.

- 국어시간의 독서지도에서는 글 내용에 대한 세세한 학습을 강조하지만 일반 독서시간에는 글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독서 후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지도가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4강. 독서태도와 독서습관

1. 독서태도의 요인

1) 독서태도의 개념

- 독서태도는 독서를 하게 만드는 감정 상태지만 독서능력과 독서습관, 능숙하고 지속적인 독자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 능숙한 독자가 되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심리적 요인이다. 독서에 대한 동기, 태도, 자신감 등은 능숙한 독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유능한 독자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2)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① 독서행동

- 재미있는 책을 읽은 독자가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재미없는 책을 읽은 독자가 읽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재미나 흥미 측면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호기심을 충족시킨 경험, 문제를 해결한 경험,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맞본 경험 등은 모두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② 독서목적

- 독서를 통해 가족, 지역, 지역, 사회 공동체에 무리 없이 진입하여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매우 강해질 것이다. 또한, 독서를 통해 상식이 많아진대거나 공부에 도움이 되는 등 유익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③ 독서 결과에 대한 신념

- 독서를 잘할 수 있고, 독서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믿음은 독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반면에 독서를 잘해낼 수 없고, 독서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독서를 거부하는 인식을 강화하여 결국은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2) 환경적 요인

- 학습이나 독서에서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독서를 조장하는 환경을 문식성 환경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가정과 학교가 주요한 문식성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① 가정의 문식성 환경

- 가정의 문식성 환경은 가족 구성원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독서, 쓰기, 대화하기, 읽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부모의 독서 행위, 읽을거리 등을 포함한다. 즉, 집에 소유하고 있는 책의 많고 적음, 서점 방문 횟수, 독서 권장 정도, 독서 강조 여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가정 독서 환경이 학생들의 독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② 학교의 문식성 환경

-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의 독서 환경보다는 학교의 독서환경에 더 지배를 받게 된다. 학교의 독서 환경은 교사의 독서에 대한 태도, 독서 지도 방식, 독서 행사와 같은 학교의 정책 등을 포함한다. 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도 학교의 독서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보유하는 문제, 도서관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전문 사서를 두어 관리하는 문제 등은 학생들의 독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③ 사회적 문식성 환경

- 사회의 문식성 환경은 교우 환경, 지역 환경, 사회 환경, 입시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우 환경이 독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 집단이 영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또래 집단의 지배적인 담론이 무엇이나에 따라 독서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역 환경이나 사회 환경 또한 독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3)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념

-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념도 독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타인이란 독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다. 부모, 형제, 친구, 교사, 친척, 사회적 인물, 또래 공동체,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대상이 타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의미 있는 타인이 책 독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기대를 품고 있는지는 독자에게 그들과 같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독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습관형성이론

1) 정합성의 원리

- 수업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 사이에 논리적 실제적 일관성과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는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와 다루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도 방법을 선택할 때는 도달하려는 목표와 다루는 내용의 성격을 잘 살펴 그것에 적절한 지도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인지화의 원리

-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르칠 때 그와 관련된 지적 이해의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리다.

3) 심정화의 원리

- 어떤 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적인 이해와 더불어 감정, 정서와 같은 정의적 요인도 결부되어야 한다는 원리인데, 어떤 태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이면서 즐거운 정서적, 감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행동화의 원리

- 어떤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을 지니게 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생활 장면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에 필요한 행위 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원리를 말한다. 바람직한 습관은 일상의 여러 장면으로 확대되어 반복적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5) 통합성의 원리

-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이 조화롭게 형성되도록 고려하는 원리를 말한다.

6) 지적, 도덕적 발달 단계 고려의 원리

- 발달단계에 맞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7) 주체적 자각화와 개별화의 원리

- 어떤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각하여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8) 직접 일러주기 원리

- 학생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강조, 설득함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9) 깊이 생각해 보기 원리

-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가치에 대한 의미, 중요성을 깨닫고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10) 모범을 보고 따라 배우기 원리

-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모범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보고 따라 배우도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11) 감동 감화의 원리

-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 감화를 받음으로써 가치가 신념화 된다는 원리이다.

12) 직접 보면서 배우기의 원리

-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행동으로 직접 해보면서 익히는 직접적인 실천과 체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13) 구체성과 현실성의 원리

- 구체적인 문제와 경험, 다양한 쟁점들을 지도 내용과 관련시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원리이다.

14) 자율적 탐구 학습의 원리

- 학생 스스로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에 의해 재구성 또는 창조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15) 능동적 참여와 토론 학습의 원리

- 가급적이면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하게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16) 반복과 계속성의 원리

- 어떤 태도를 학습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습관화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17) 집단 활동의 원리

- 어떤 가치나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개별적 활동으로 쉽게 얻기 어려운 결과를 집단 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원리로,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실천 성향을 높여 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원리이다.

18) 적절한 자료 활용의 원리

-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19) 적절한 외적 환경 조성의 원리

- 어떤 태도를 내면화함에 있어 학급과 학교의 환경을 적절히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이다.

20) 학교, 가정, 지역 사회의 연계에 의한 지도의 원리

- 어떤 가치와 태도를 지도함에 있어 학급 및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연계에 의한 통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5강. 독서지도 전략 1

1. 문제상황활용전략

1)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와 무엇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의 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내용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킴과 아울러 자신의 해결책을 읽기 자료에 제시된 해결책과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전략이다.

2) 절차

- ① 지도 교사는 읽기 자료를 검토하여 학생들이 생각해 볼만한 문제 상황을 개발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는 그 문제 상황과 연관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 ② 협동학습 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가능한 결과 혹은 해결책을 찾아보게 한다. 각 소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이 제시한 해결책을 기록함과 아울러 그 해결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토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 ③ 각 소집단으로 하여금 여러 해결책 중에서 최선의 해결책 혹은 결과를 결정함과 아울러 그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개발하도록 한다.
- ④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 자료의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결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자의 해결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읽기 자료에서 찾아 정리하게 한다.
- 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예측한 해결책과 읽기 자료에서 찾아 정리한 정보를 비교해 보게 한다. 그리고 처음에 제시된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해결책을 수정 보완하게 한다. 소집단별로 수정하고 보완한 해결책을 발표하고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에 대하여 학급 전체 집단에서 토의를 해 보도록 한다.

3) 특징

- ① 이 전략은 문제-해결 관계를 다루는 어떤 종류의 읽기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② 이 전략은 어떻게 와 무엇으로 연결된 읽기 자료를 성공적으로 분석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준다.
- ③ 학생들은 읽기의 과정에서 배경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 ④ 학생들은 읽기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틀을 습득하게 된다.

2. 작문상황활용전략

1)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의 과정에서 글을 쓰는 상황에 들어가 보게 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의

과정에서 필자의 역할, 예상 독자, 글의 형식 구조, 글의 주제를 분석해 보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독서 능력과 작문 능력을 함께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2) 절차

- ① 지도 교사는 먼저 학생들이 읽어야 할 읽기 자료 중에서 학습해야 할 주요 내용이나 정보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 이러한 학습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정리해 본다.
- ② 학생들과 함께 글을 읽으면서 읽기 자료에 나오는 인물들과 연관하여 학생들이 맡을 수 있는 가능한 역할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에 합당한 입장에서 글을 쓸 경우에 가능한 예상 독자, 글의 형식 구조, 주제 등을 정리한 작문 상황 분석표를 작성한다.
- ③ 글을 다 읽은 다음에는 앞에서 작성한 역할, 예상 독자, 글의 형식 구조, 주제 등에 관한 작문 상황 분석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 어떤 하나의 역할을 맡게 한다. 이 경우 학생들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여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역할을 결정한 다음에는 예상 독자, 글의 형식 구조, 주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역할을 맡은 학생들끼리 협동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 내가 맡은 역할의 어떤 측면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 내가 왜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 내가 맡은 주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혹은 찬성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도록 한다.
- ④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에 적합하게 작문 상황 분석을 끝낸 다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쓰게 한다. 지도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간단한 시범을 보여 주도록 한다.

3) 특징

- ①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글로 써 봄으로써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들은 작문 상황 분석 활동을 통하여 정보처리의 실제적인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 ③ 학생들은 글의 형식적 구조를 분명하게 학습할 수 있다.
- ④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읽기 자료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3. 질문과 대답 사이의 관계 파악 전략

1)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략

2) 절차

- ① 지도 교사는 도식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책 속에 답이 있는 질문과 독자의 머릿속에 답이 있는 질문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예를 통해서 질문과 대답 사이의 관계 파악 전략을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② 지도 교사는 어떤 질문은 글 속에서 직접 답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질문은 독자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다. 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과 토의한다. 학생들에게 정답이 책 속에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먼저 정답을 글 속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글 속의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야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나중에 제시한다.

③ 지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내 머리 속에 정답이 있는 질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읽기 자료를 통하여 그 대답을 찾도록 한다. 저자와 내 머릿속에 정답이 있는 질문의 경우, 정답의 일부는 글 속에 암시된 내용으로부터 또 일부는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으로부터 정답을 구성해내도록 한다. 순전히 내 생각으로부터 정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의 경우,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정답을 찾도록 한다.

④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별로 그 질문들을 위에서 학습한 네 가지 질문 유형으로 분류해 보도록 한다.

⑤ 학생들이 질문의 유형을 구별하는 일에 익숙해진 후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을 만들어보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에 대하여 짝과 함께 또는 소집단별로 대답을 작성해 보게 한다.

3) 특징

- 학생들은 질문에 답변할 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 학생들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 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 새로 접하게 되는 정보를 자신의 기존지식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6강. 독서지도 전략 2

1. 협동적 의견 교환 전략

1)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읽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사려 깊은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략
-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이나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략이다.

2) 절차

- ① 학생들에게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지니고 있거나 논평을 하고 싶은 진술을 다섯 개 정도 선정하게 한다. 각 진술은 학생들이 동의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 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 놀라운 것, 재미있는 것,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 등이 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선정한 진술은 일정한 표시를 해 두게 한다.
- ②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정한 진술을 색인 카드에 적게 한다. 그리고 카드의 뒷면에는 그 진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게 한다.
- ③ 학생들로 하여금 5명 정도로 구성된 협동학습 집단을 조직하게 한다. 각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선정한 진술 중에서 하나를 먼저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그 진술을 읽기 자료에서 찾아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도록 한다. 다른 구성원들이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발표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도록 한다. 다른 학생들의 의견 제시가 끝난 다음에 발표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협동학습 집단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차례대로 하나의 진술을 발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 ④ 이번에는 두 번째 카드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한 방식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한다.

3)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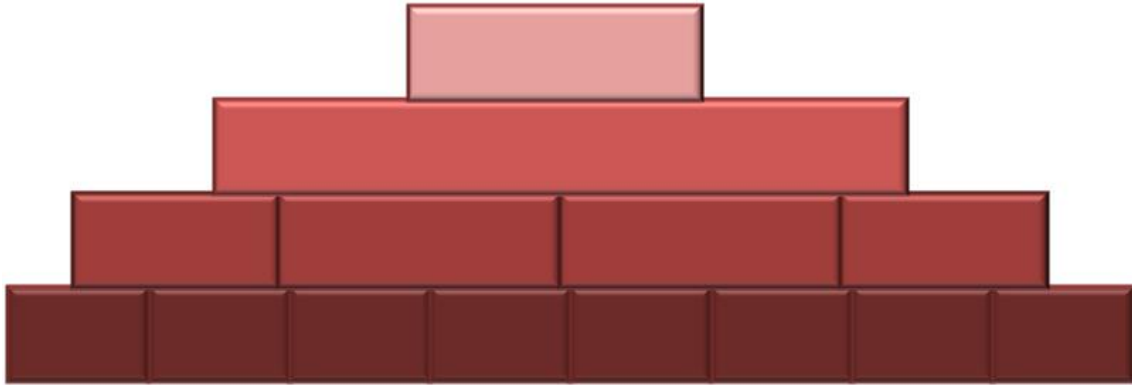
- ① 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글의 내용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 ② 학생들은 글의 내용을 개인적 경험이나 의견과 연관시키면서 토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③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2. 피라미드 도식화 활동전략

1)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결론을 도출하거나 일반화를 위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읽으면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안내해 주기 위한 전략이다.

2) 절차



- ① 지도 교사는 먼저 학생들이 읽기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제공해 주도록 한다.
- ② 학생들에게 색인 카드를 제공해 주고, 읽기 자료의 일정 부분을 읽게 한다. 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 지도 교사가 제시한 각 질문과 연관되는 정보를 선정하여 서로 다른 카드에 기록한다.
- ③ 지도 교사는 학생들이 기록한 카드의 내용을 각 질문별로 발표하게 한 다음에 선정한 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에 대한 시범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작성한 카드를 일정한 범주로 묶어 보게 한다. 자신의 카드를 일정한 범주로 묶은 이유에 대하여 짝과 함께 토의를 해 보게 한다. 지도 교사는 일정한 범주로 묶여진 카드들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쌓아 가면 피라미드 도식을 만들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 ④ 학생들로 하여금 묶어 놓은 카드들에 적절한 소제목을 붙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집단이나 전체 학급 내에서 브레인스토밍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를 한다. 그리고 각 묶음에 소제목을 부여한 다음에 그것을 새 카드에 적게 한다. 새로 작성한 카드들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배열하게 한다.
- ⑤ 위에서 두 번째 층에 있는 직사각형에는 피라미드에 표현된 모든 정보들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 문장 또는 중심 문장을 쓰게 한다. 피라미드 도식의 세 번째 층에 있는 직사각형에는 주제 문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주요 내용을 쓰게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직사각형에는 주요 내용을 직접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을 쓰게 한다.
- ⑥ 학생들로 하여금 위에서 작성한 피라미드 도식을 참고하여 하나의 결론 문단을 작성하게 한다.

3)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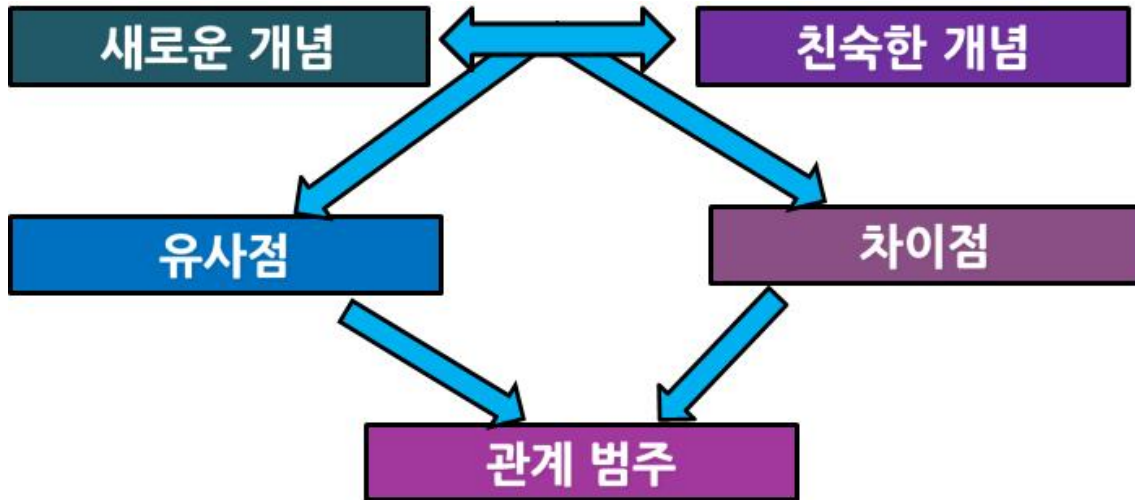
- ① 학생들은 세부 정보들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② 학생들은 능동적 독서 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정보를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게 된다.
- ③ 학생들은 읽은 글을 체계적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된다.

3. 도식을 통한 유추 전략

- 가족의 발달적인 경향을 묘사하기 위해 가족의 역동, 발달과업 등을 가족의 생활주기별로 기술함

1)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개념과 친숙한 개념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략



2) 절차

- ① 학습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유추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친숙한 개념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② 학생들에게 유추를 위한 내용 조직 도식을 제시하고, 두 개념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나 속성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유사점 항목에 기록하도록 한다.
- ③ 학생들로 하여금 두 개념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 결과를 차이점 항목에 기록하도록 한다.
- ④ 비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범주가 있는지에 대하여 학생들과 함께 토의 활동을 벌인다.
- ⑤ 유추를 위한 내용 조직도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개념과 친숙한 개념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요약문을 작성하게 한 후, 소집단별로 발표토록 한다.

3) 특징

- ① 유추 관계에 있는 친숙한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이나 어휘에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한다.
- ②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읽기 자료와 연관되는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③ 비교 대조의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라 잘 조직된 요약문 작성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7강. 독서흥미발달

1. 독서흥미유발 발생요인

1) 내면적 요인

(1) 욕구의 직접적 충족

- 이는 독서재료가 기본적인 욕구의 어떠한 것을 직접적으로 충족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독서재료에 대한 흥미가 발생하여 동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2) 욕구의 간접적 충족

- 이는 그 독서재료를 읽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재 다른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될 경우 그것에 대한 흥미가 발생하여 동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예)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읽는다든지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읽는 경우로 독서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경우이다.

(3) 욕구불만의 보상

- 이는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독서로 메우기 위하여 적합한 독서재료에 대한 흥미를 가짐으로써 동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예) 동물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동물이야기를 읽는다든지 학대 받는 어린이가 거인 정복의 이야기를 읽는 경우이다.

(4) 현실도피

- 이는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 고충을 잊고 다른 자유스러운 세계에 도피하기 위하여 거기에 적합한 독서재료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동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실문제와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유머나 가공소설 등이 많이 읽혀진다.

(5) 모방

- 위와 같은 독서행동을 타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슷한 정황에 있는 자가 그것을 모방하여 같은 독서재료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동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베스트셀러독서가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인에서라 볼 수 있다.

2) 외부적 요인

(1) 도서체제

- 초등학교 학생들은 도서가 대형이고 표지가 빨강, 파랑, 노랑 등의 강한색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 그림이 많은 것, 여백이 넓은 것을 주로 선택한다.

(2) 독서재료의 입수조건

- 독서재료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환경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3) 교사의 영향

- 아동의 경우에는 교사가 추천하는 도서, 담임교사의 전공분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4) 영화, 라디오, TV

- 이는 한편으로는 독서저해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내용의 도서를 읽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TV나 라디오의 연속극을 단행본으로 출판했을 경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5) 출판물에 대한 선전효과

- 각 출판사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개하는 선전광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2. 독서흥미발달단계

1) 구술기, 초현실적 반복 이야기(2~4세)

- 어린이들이 주어지는 환경을 그대로 모방하고 받아들이는 시기로 생활의 규범이나 예의, 태도를 익히며 간단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듣기를 좋아한다. 또 동·식물과 무생물을 의인화한 이야기를 즐겨서, 모든 삼라만상과 대화가 가능하다. 되풀이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되풀이되는 의성어, 의태어에 깊은 흥미를 나타내며 그 운율을 즐긴다. 초현실적인 이야기, 그림책을 즐기는 시기이다.
- 가정이 아동의 사회적인 적응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또한 이야기 자체가 짧아야 하고 동식물과 무생물이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 아동 자신과 이야기 해주고 있는 성인이 중심이 된다. 이때는 아동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한 장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책에서 운율 등 리듬이 있는 것을 좋아하며, 유머가 담겨 있으며 다소 교훈적인 내용을 좋아한다.
- 책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독서에 흥미를 느끼기보다 도서에 흥미를 집중하는 시기이다. 또한 어린이가 주어지는 환경을 그대로 모방하는 결정적 시기이고 생활의 규범, 예의, 지식, 태도를 익히는 시기이다. 탈 것, 식물, 동물 등 사물 인지에 흥미를 느끼며 단편적으로 동식물과 무생물을 의인화한 이야기도 즐긴다.(초현실적 이야기)
- ▶ 그림책에는 사실동화인 생활 그림책, 동물, 식물, 승용차 류, 가구 등 생활 주변에 있는 물건의 이름들을 알 수 있는 것 등의 지식 그림책, 환상동화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① 그림책

② 사생활규범에 관련된 이야기

2) 옛날이야기기(4~6세)

-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상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시기이다. 또한 선악의 판단이 싹트기 시작할 때이며 말의 발달로는 “왜, 어째서”를 남발하는 질문기에 해당된다.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현실과 멀리 떨어진 환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선호 하지만 소재는 아동의 주변 생활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또 무생물이 살아서 등장하고 추상적인 관념이 물체에 표현되는 환타지의 내용을 선호한다.
- 모든 행동과 표현을 양극으로 나타내는 자기중심적인 시기로 선악, 인과관계, 가능과 불가능 가치와 무가치를 대립관계가 아니라 일체적으로 경험한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조화되고 명확한 가치판단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즐긴다.

- 모든 행동과 표현이 양극으로 나타나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 이 시기에는 선과 악, 가능과 불가능, 가치와 무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판단하며,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우리 편(좋은 사람), 반대 편(나쁜 사람) 또는 아군, 적군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 한다. 이 시기에는 옛날이야기처럼 시작과 끝이 조화를 이루고, 명확한 가치 판단 즉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를 즐긴다.

▶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상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시기

- 선악에 대한 개념 형성 시작
- '왜, 어째서'를 남발하는 질문기
- 설화나 동물이야기, 그림책 종류에 흥미

① 옛날 이야기(4~8세) 「옛날 어느 곳에... ...」 식의 초현실적인 설화, 동물 이야기, 전래동화, 그림(Grimm) 동화류

② 그림책류(4~8세)

3) 우화기(6~8세)

-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아직 생활환경이 자기중심적 심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나 사회생활에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행동규범을 무조건 수용하는 시기이다. 선악, 진위, 정의와 불의 등 도덕성을 명백히 하지만, 아직 타인의 도덕률에 의존하는 타율도덕시기이다. 이솝우화, 그림책, 옛날이야기를 즐긴다.

- 흥미의 대상은 아직 신변의 생활환경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현실적이다. 아동은 규칙 등을 무조건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서 선과 악, 현명과 우둔 등의 도덕성을 명백히 하고 그 갈등을 좋아한다.

- 아직 신변의 생활환경과 자기중심적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에 관심은 높아 행동규범을 무조건 수용하는 시기이다. 선악, 진위, 정의와 불의 등 도덕성을 명백히 하고 그 갈등을 즐기나 아직 타인의 도덕률에 의존하는 타율 도덕시대이다.

- ▶ 옛 이야기의 패턴은 계속되나 실제 생활이 사회적으로 확대-실제 행동의 규범에 관심
- ▶ 왕성하게 가치의 판단을 구하며 도덕적 판단을 포함하는 이야기에 흥미
- ▶ 글을 읽기 시작하나 그림의 보조적 역할이 필요한 단계

① 옛날이야기(4~8세) 초현실적인 설화

② 그림책류(4~8세)

③ 우화(6~8세) 옛날 이야기의 단문 형식으로 단순한 도덕성을 가해 놓은 것. 이솝 우화류.

④ 일화(6~8세) 위인들의 유년 시대의 모범적인 행동을 단편적으로 나타낸 것.

4) 동화기(8~10세)

- 자기중심적 심성에서 벗어나는 시기로 자타를 구별하고 현실사회를 살필 줄 알며, 주인공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공감하는 등 자주적 판단에 의거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자기의 태도를 결정한다. 생활동화를 즐겨 읽고 신화나 전설 등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

- 이 시기를 과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야기 중의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인전이나 영웅의 행동 업적을 과장하게 꾸며 놓는 책을 좋아한다. 판타지의 경우, 현실과 공상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의로 현실을 초월한 상상이 기쁨을 누린다.

- 자기중심적 심성을 벗어나 자타를 구별하고 현실 사회를 살피며 주인공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반면, 자주적 판단에 의거하여 사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정(正)과 부정(不正)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정조(情操)를 경험하는 태도를 기른다.

- ▶ 자기중심적 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동화에 의해 현실의 재구성을 즐김
- ▶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현실을 배우려 하는 단계
- ▶ 생활 영역의 확대로 자주적인 태도와 가치적용을 증대

(1) 생활동화(8~10세)

- 현실의 어린이들의 개인생활을 상상으로 꾸며 놓은 것. 이 상상성은 예술적인 감정과 시적인 정의감에 호소해 놓은 것이 좋다. (안데르센 동화류, 창작 동화류)

(2) 신화전설(8~12세)

- 위인이나 초인적인 영웅의 행동 업적을 과장해서 꾸며 놓은 것. 이는 어린이들의 영웅 숭배의 정을 만족시키고 뛰어난 용기를 고무시키는 데 좋다. (홍길동전, 아이반호)

(3) 가공(架空)이야기(9~13세)

- 이 나이에는 현실과 공상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의로 현실을 초월한 상상이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아라비안나이트, 걸리버 여행기, 피터팬, 요정·요술 이야기)

5) 이야기기(10~13세)

- 이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어른에 의존하기보다 친구를 중심으로 의존하는 시기이다. 우정, 또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자치활동 모험 탐험을 즐기며, 현실세계에서 우주로 시야가 넓어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의미를 추구하는 시기로 공상과학이야기, 소년소녀소설, 모험·탐정·과학소설 등과 발명이야기를 즐긴다.

- 발달과정상에서 성인 의존보다 친구 의존이 중심인 시기이다. 우정이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집단적 행동이나 자치적 활동에 관심을 높인다. 또래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므로 그룹을 만들어 비밀 모험을 즐기기를 좋아한다. 자치 활동, 모험, 탐험을 즐기고 현실 세계에서 우주로 시야가 넓어지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의미를 추구한다.

- 지적인 면에서는 과학적인 흥미가 증진하므로 미지의 세계 정복을 구하는 등 지적인 행동반경이 넓어진다. 자연과 사회 환경이 지적이 이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 따라서 독서 자료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독서 분화기라고 볼 수 있다.

- ▶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
- ▶ 새로운 행동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가려는 단계
- ▶ 행동의 장벽을 극복하는 모험을 즐기며 사회적인 자각이 성숙하면서 인간관계의 갈등에 관심
- ▶ 판타지의 시기에서 과학적인 사고의 시기로 변모되는 과정

① 신화전설(8~12세)

② 가공이야기(9~13세)

③ 소년 소녀 문학(10~13세)

- 현실의 사회생활에서 소년 소녀가 당면하는 문제를 그린 것. 소년이나 영웅을 주역으로 한 평이한 문학. 특히 이 시기에는 남자는 강한 것을 누르고, 여자는 약한 것을 동정하는 소위 사회적 정의와 우정에 공명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의 협력, 충성, 희생 등과 그것을 배반하는 자의 제재에 대한 이야기 등을 좋아한다. 소년 삼국지,

소공자, 베니스의 상인 등이 그 예이다.

8강. 독서능력발달

1. 독서능력요소

1) 독서능력의 정의

- 독서능력이란 문자언어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고 감상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고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독서능력은 복합적 능력을 기초로 하므로 상위개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자를 인지하는 능력, 어휘를 판별하는 능력, 이미 학습한 어휘를 기억하여 책에서 읽은 어휘와 연결하는 능력, 이해한 내용을 비판하고 감상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2) 독서능력 요소

- 첫째, 어휘력(語彙力)은 낱말들의 집합인 어휘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이미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모르는 어휘라도 추리하여 읽어 나감으로써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둘째, 문법력(文法力)은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배열된 말의 상호 관계를 연관시켜 독서 시 표현된 의미를 연계 또는 이해하고 글의 뜻을 바르게 포착하는 능력이다.
- 셋째, 사고력(思考力)은 과제를 바르게 해결해나가는 능력으로서 독서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추리판단을 창출해 나가는 능력이다.
- 넷째, 독해력(讀解力)은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독해는 글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능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독자는 목적에 따라 의미를 재형성하면서 지식의 폭을 넓히고 정서적 반응을 만들어 나간다.
- 다섯째, 비판력(批判力)은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써 글에서 독자가 받아들여진 의미를 신중하게 판별하는 능력이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식별하고 선택하고 분간하고 논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여섯째, 감상력(鑑賞力)은 독자가 글이 주는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면서 내용을 음미하고 의미를 재창조해나가는 능력이다.

2. 독서능력발달단계

1) 유아기(7세이전): 독서 맹아기

- 이 시기 아동은 이야기 내용보다 그림이나 삽화에 더 관심이 많으며, 반복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이 꾸민 이야기, 동물이 나오는 것, 동요 및 짧고 간단한 옛날이야기, 의인화 된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 시기는 독서에 대한 개념보다 독서 준비단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환경적, 신체적 독서능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 사회성과 도덕성 발달을 돕는 책을 제공한다. 창의적인 해석을 하는 책,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내용, 인내심을 보이고 행동에 책임을 다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말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수 개념과 색, 모양, 크기, 용도에 따라 사물의 기능을 분류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운다. 이야기가 일어난 순서를 알게 한다.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 맞는 그림 찾기 등도 시도할 수 있다.

- 글을 읽기 이전 단계로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시기이다. 아동의 직접적 경험과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전래동화, 비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는 어린이 프로그램, 그림책 등은 이 단계의 언어발달의 주요 동인이 된다. 따라서 이 단계의 독서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① 독서가 주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 ② 주변의 문자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 ③ 책을 바로 세워 두는 것과 같은 독서행동을 보인다.

2) 저학년(1~2학년): 독서 입문기

- 1학년 아이들은 다소 복잡한 이야기도 이해하며, 선악을 구분한다. 책 내용은 학교 공부와 관련되는 언어, 산수, 자연, 사회 등의 여러 분야 책을 골고루 접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 좋다.

- 유아시절에 들으면서 읽기에 익숙한 아동들은 좀 더 길고 복잡한 다른 나라의 환상동화, 마음을 울리는 생활동화 등도 가능하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다양한 단어를 익히면서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한다.

- 2학년이 되면 혼자 책 읽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스스로 좋은 책을 찾아보고 싶어 한다. 아직은 듣고 즐기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한층 풍부하게 펼쳐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름다운 글과 그림이 조화된 책이라면 아동은 더욱 상상력을 키워가며 읽는다. 요즘에는 저학년이 읽기에 알맞은 옛이야기,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과학책, 또래의 경험을 배우는 생활동화까지도 그림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 음성언어에서 문자언어로 나아가는 시기로 글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기이다. 음독이 중요하며 글자는 소리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① 부호가 말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안다.
- ②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한다.
- ③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바로 안다.
- ④ 간단하고 친숙한 구절을 유의미한 단위로 인식한다.
- ⑤ 새로운 단어를 해독하는 능력을 획득한다.
- ⑥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않고 글을 통해 바로 의미가 들어온다.

3) 중학년(3~4학년): 기초 기능기

- 그림 중심에서 글자 중심의 책으로 넘어간다. 비교적 읽기에 편한 내용이나 수준에 알맞은 책을 많이 읽어 독서습관을 형성한다. 중학년 아이들은 지식에 관한 책과 긴 이야기를 좋아한다. 독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신장시켜가면서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여 배경지식을 넓히고 읽는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 생각의 정리·정돈과 그 연결 능력 등이 극도로 발달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학생들의 읽기는 흥미로 읽는 독서, 공부를 위한 독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독서 등으로 나누어진다. 나와 가족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주인공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비판하거나 공감하는 등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기 태도를 결정한다.

- 환상과 현실이 결합된 이야기인 신화와 전설을 좋아한다.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동은 역사와 전기적 인물의 입장에 자기를 동일시하기를 좋아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슬픔, 충성과 배신, 강함과 약함, 비겁과 용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한다. 우정에 관한 책을 좋아한다. 우정을 이야기한 책은 아동에게 친구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주고 친구 사귀는 데 도움을 준다.

- 다른 특징으로는 모험에 관한 책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어른에게 예측된 생활을 떠나 독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가족을 비롯한 생활주변의 이야기, 사회 모습을 다룬 이야기,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 특히 아동이 흥미 있어 하는 여러 분야의 인물 이야기를 읽게 한다. 그러면 넓어진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세상에 대한 다양한 관심 속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다.

- 해독에서 독해로 나아가는 시기로 독서의 기초 기능을 익히는 시기이다. 긴 문장을 의미단위로 끊어 읽게 된다. 학습 독자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묵독이 중심이 되는 의미중심의 글 읽기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① 단어 인식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읽어야 할 것들이 더 복잡해진다.

③ 장은 길어지고 문장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④ 활용할 수 있는 어휘력이 증가되고 개념과 아이디어가 넓어져 간다.

⑤ 복잡한 형식으로 생각을 표시할 수 있다.

⑥ 여러 목적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읽을거리를 찾는다.

⑦ 즐기기 위한 독서와 공부하기 위한 독서를 구별한다.

⑧ 줄거리 위주의 관심에서 벗어나 유머나 성격 설정, 묘사의 정확성과 생생함, 예술적인 표현의 아름다움 등으로 관심이 이동한다.

4) 고학년(5~6학년): 기초 독해기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함께 이해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책을 읽을 때에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같은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여 비판할 수 있다. 소년, 소녀를 주인공으로 어려움을 헤쳐 가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험담이나 생활 속의 문제를 어린이 시각에서 다룬 내용의 책과 논리 책들이 적합하다.

-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를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가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과 우리 역사와 사회, 문화에까지 사고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알고 싶어 한다.

- 합리성이 발달하여 비현실적인 논리에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도 흥미를 가진다. 더 큰 집단성을 지니기도 하여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위치를 잡아가는 시기이다. 호기심 분야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 관심에 따른 독서지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 초급의 사고 기능을 익히는 단계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정보를 축약하기,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기,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비유적 표현의 의미 이해하기,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등과 같은 기초 독해 기능을 기르는 단계이다.

- ① 자립 성숙 단계이다.
- ② 독자 이전 경험과 연결한다.
- ③ 저자가 제시한 사실과 주장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한다.
- ④ 논리적인 추론에서 오류가 있는지 주의한다.
- 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 ⑥ 객관적인 추론과 소망을 구별한다.

9강. 읽기활용전략

1. 읽기에 대한 상이한 관점 활용 전략

1) 목적

- 독자의 배경지식, 신념, 세계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글을 이해하게 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략 글의 내용에 대한 예측을 폭넓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략이다.

2) 절차

- ① 학생들로 하여금 글 전체를 읽게 한다.
- ② 글의 중심 내용이나 중요한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관점들을 식별하게 한다.
- ③ 학생들로 하여금 3~4명으로 구성된 협동학습 집단을 구성하게 하고, 각 집단에게 서로 다른 관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정 관점과 관련되는 주요 문제, 느낌, 효과, 관심 영역 등을 식별하게 한다.
- ④ 학생들로 하여금 글 전체를 다시 읽게 하고, 해당 관점과 특별한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구체적 정보나 진술을 찾게 한다.
- ⑤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독서 자료에서 찾게 된 새로운 인식이나 통찰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게 한다.

3) 특징

- ① 이 전략은 하나의 글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결론과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준다.
- ② 학생들은 이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글의 내용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 ③ 학생들은 글을 체계적으로 다시 읽음으로써 글을 처음 읽을 때 알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 ④ 이 전략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에게까지 두루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글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대화 분석 전략

1) 목적

-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설명문이나 전기문, 또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 분석을 통하여 인물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전략

2) 절차

- ① 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대화문을 교사가 미리 선정한다.
- ② 34명으로 구성된 협동학습 집단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 집단에게 서로 다른 대화문을

제시한다. 각 집단 구성원들은 대화문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성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추정해보도록 한다.

③ 각 집단별로 추정한 인물의 성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그리고 다음 순서에 따라 협동학습의 결과를 발표한다.

- 전체 학생들에게 각 집단에서 담당한 대화문을 읽어 준다.
- 각 집단별로 대화문을 토대로 추정한 인물의 성격을 발표한다.

④ 각 집단의 발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각 집단별 협동학습을 통하여 인물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문장을 3-5개 정도 작성하게 한다.

⑤ 학생들로 하여금 글 전체를 읽게 한다. 글을 다 읽은 후에는 새로 알게 된, 인물의 특성에 대하여 토론하게 한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인물의 성격에 관하여 앞에서 작성한 글을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3) 특징

- ① 학생들로 하여금 글에 나오는 주요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에 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지니게 할 수 있다.
- ② 학생들에게 글의 주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학생들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대화를 분석해 보게 함으로써 등장인물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3. 주요 인물 분석 전략

1) 목적

-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변화와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작가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인물의 분석을 통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등장인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도표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2) 절차

- ①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개관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야기는 배경, 등장인물, 구성, 갈등, 문제의 해결, 주제 등의 요소로 구성됨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 ② 학생들로 하여금 인물 분석의 과정을 개념화 할 수 있도록 탐정의 역할을 비유하여 설명한다. 이야기의 주제를 발견하기 위하여 탐정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 이야기 속에 담긴 작가의 관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인물의 행동과 말, 다른 등장인물들이 그 인물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이야기의 갈등구조 속에서 인물이 하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의 변화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다음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 ③ 인물 분석 도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친숙한 이야기를 이용하여 인물 분석 도식을 완성하는 시범을 보여 준다.
- ④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 작품을 읽고 짝과 함께 인물 분석 도식의 일부를 완성해 보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리해야 한다.

⑤ 네 명 정도로 구성된 소집단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여 인물 분석 도식의 나머지부분을 완성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물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 때 학생들은 이미 정리해 둔 세 측면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인물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리한다. 각 소집단 별로 인물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주제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⑥ 학생들로 하여금 둘 이상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 다른 문학 작품을 읽고 또 하나의 인물 분석 도식을 완성해 보게 한다.

3) 특징

① 이 전략의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작가의 주제 의식이나 작품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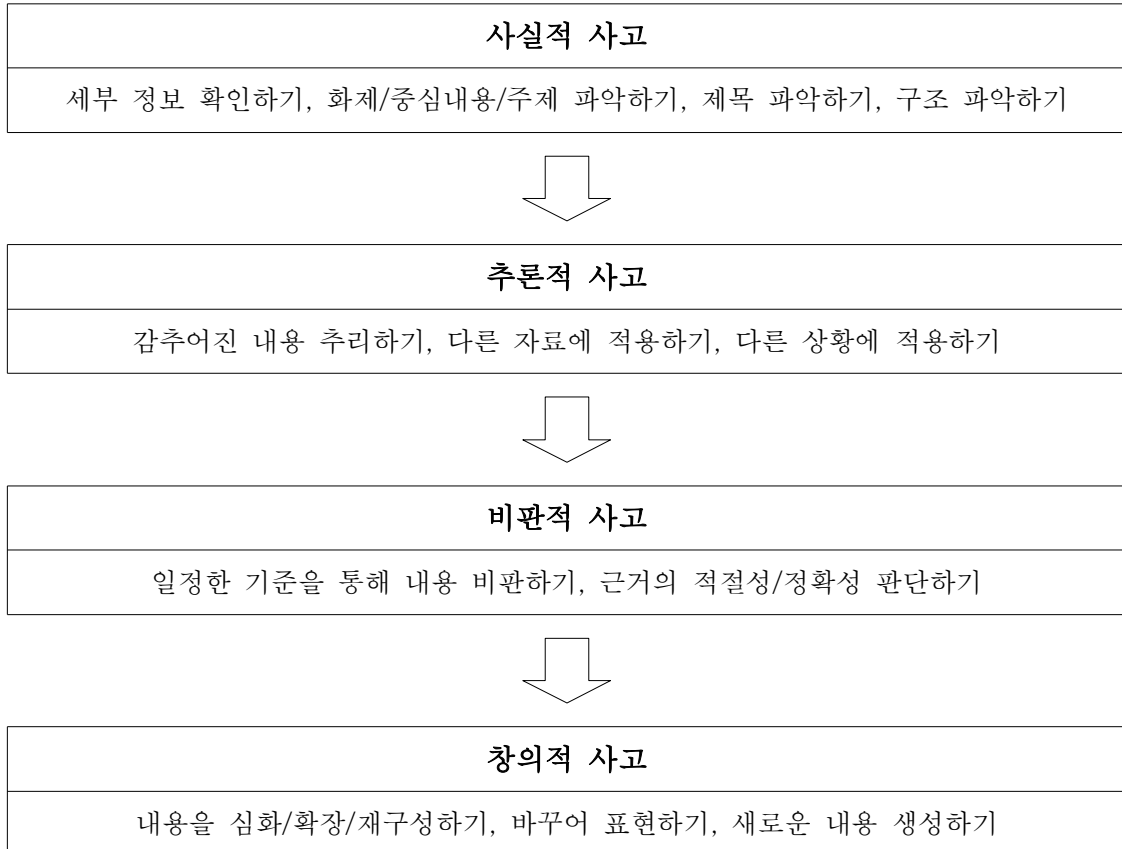
② 학생들은 변화와 갈등이 인물의 변화에 끼치는 주요 역할을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③ 학생들은 작가의 관점과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의 주요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10강. 비문학 읽기전략

1. 비문학 읽기

1) 비문학 읽기 사고과정



2) 비문학 읽기 방법

(1) 문단을 나누고 문단 번호를 붙인다.

- 비문학은 정독을 해야 하는 글이다. 글의 중심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문단 단위로 나누어서 살필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문단을 구분해야 한다.

(2) 중심화제와 중심내용을 파악한다.

▶ 중심화제와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① 반복되는 단어를 파악한다. 반복되는 단어는 화제어일 가능성이 높다.

② ‘~해야 한다, ~이 필요하다.’ 등의 서술어에 주의한다. 이러한 단정적인 표현은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중심문장일 가능성이 높다.

③ 접속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역접과 인과관계의 접속어 뒤에는 문단에서 중심적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④ 지시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이처럼, 이렇듯, 즉’ 다음에 서술되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앞의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는 중심문자일 가능성이 높다.

⑤ 문단의 앞뒤 문장에 주의해야 한다. 뒷문단의 첫 문장이 앞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3) 글의 구조와 주제를 파악한다.

- 문장과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되고 문단이 한 편의 글이 된다. 또 각각의 문장이 문단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듯이 문단도 글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문단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각 문단의 기능을 유기적 관계로 파악한 것이 글의 구조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문단의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주제 문단이 눈에 들어오고 주제 문단에서 글 전체의 주제를 찾아볼 수 있다.

▶ 글의 구조와 주제 파악하는 방법

- ① 접속어 등에 유의하여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② 글의 구성에 따른 문단 간에 관계 유형을 살펴 문단의 소주제를 파악한다.
- ③ 중심문단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등을 살펴 이를 구조화한다.
- ④ 중심화제와 핵심개념 등을 중심으로 글을 요약해보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한다.

(4) 읽기 결과를 정리한다.

- 비문학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문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문학 문제는 결국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어떤 지문이 나오거나 어떤 발문 형태가 나오더라도 결국 지문을 읽고 이해하여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 비문학 읽기 정리 방법

- ① 읽은 내용을 구조화한다. 먼저 문단의 중심내용을 정리하고 문단을 묶어 구조를 파악한 뒤 주제를 적는다.
- ②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요약하는 능력은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독해능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 ③ 낯선 어휘를 정리한다. 처음 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 정리해보고 문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유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2. 읽기 전략

- 가족의 발달적인 경향을 묘사하기 위해 가족의 역동, 발달과업 등을 가족의 생활주기별로 기술함

1) SQ3R

- SQ3R은 학습기술연구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로빈슨(Francis Robinson)이 개발한 다양한 읽기자료에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읽기 모형이다. SQ3R을 중심으로 하여 개요 만들기, 질문하기, 밑줄 긋기, 노트하기, 요약하기 등의 단계를 보다 견고하게 지도하면 SQ3R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1) 개관하기(Survey)

SQ3R	활동내용
Survey (훑어보기)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읽기 제목, 소재, 글의 첫 부분, 굵은 서체의 소제목들과 각 소제목에 따르는 첫 문장들, 요약 또는 마지막 문장, 소제목 단원의 끝 부분을 훑어보게 한다.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눈으로 대충 내용을 훑는 것이 보통이다.
개요만들기	TIP> 훑어본 내용으로 개요를 작성해 본다면 보다 효과적인 훑어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요를 작성해 봄으로써 글 전체의 거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며 효과적인 초점 맞추기와 과정 세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굵은 글씨체의 제목과 소제목을 읽고 난 후, 그 제목을 적는다. 제목 아래에 소제목의 목록을 만든다.

(2) 질문하기(Question)

SQ3R	활동내용
Question (질문하기)	글을 읽기 전에는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예언해 볼 수 있는 질문, 학생의 선행 지식을 연결시키는 질문, 글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질문 등 여러 가지 목적의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질문하기	TIP> 수정된 SQ3R에서는 여러 단계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읽을 글의 내용을 예언하는 질문만을 만들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을 이용하여 질문을 만든다. 각 소제목을 이용하여 질문을 만든다. 질문을 만들 때는 ‘육하원칙’을 사용한다.

(3) 읽기(Read)

SQ3R	활동내용
Read (읽기)	정신을 집중하며 읽되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며 읽어야 한다. 중요한 용어, 개념은 물론 본문만 읽지 말고 표, 그래프, 그림도 빼놓지 말고 읽어야 한다.
밀줄긋기	TIP> 밀줄 긋기를 사용하면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을 요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능률적인 읽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을 절약하게 되어 복습을 통해 글을 시연하고 기억하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를 하기 전에 표제의 절을 끝까지 읽는다. 중요한 요점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단서를 찾는다. 핵심 단어나 구절들에만 밀줄을 긋는다. 요점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 주는 숫자 체제나 표시 체제로 나타낸다.

(4) 암기하기(Recite)

SQ3R	활동내용
Recite (암기)	각 표제 절의 끝에 가서는 읽던 것을 멈추고 절을 읽기 시작할 때 품었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되새기기 단계는 머릿속으로 암송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노트하기	<p>TIP> 보다 효과적으로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주어진 질문에 효과적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읽은 내용을 떠올리면서 적어 보는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하기는 글을 다 읽은 후에 실시한다. • 노트하기는 기억을 더듬어 한 단어나 한 구절의 형태로 적는다. • 묘사나 인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단어를 이용해야 한다. • 내용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시대나 시간 순으로 적는다.

(5) 재검토로 복습하기(Review)

SQ3R	활동내용
Review (복습)	<p>학습자는 각 제목으로 돌아가서 질문과 답을 기억해 보도록 한다. 읽은 내용에 대해 총정리 하면서 복습하고 읽기의 내용을 자신의 기존지식, 경험 및 의견 등과 관련 지어 본다.</p> <p>TIP> 요약하기 전략은 읽은 후에 독해를 심화하는 전략으로 널리 사용되므로 다시 보기 단계에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여겨진다. 요약하기는 글의 주요 개념을 구성하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요약하기 위해서 독자는 교재의 중요 개념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약하기를 위해서는 개념들을 분류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기억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간편하게 만든다.</p>
요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항목을 하나의 단어나 구로 바꾸어 적는다. • 제목이나 핵심 단어를 포함한 구절을 사용하여 세부 사항을 요약한다.

2) SQRW

- 로빈슨의 SQ3R을 필기에 적합하게 응용 변환한 것으로써 필기법에서 많이 활용된다. SQRW 공식은 교과서를 읽고 그것으로부터 핵심을 찾아내는 것과 관련된 4개의 단계를 나타낸다.

(1) 훑어보기(Survey)

- 공부할 책이나 교과서에 대해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것. 자신이 읽고자 하는 책이나 교과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 예) 목차를 살펴본다든지 책을 넘기면서 큰 제목과 소제목으로 보면서 책의 전체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 훑어보기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책과 친해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책에 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질문하기(Question)

- 대충 훑어보면서 드는 의문점이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정리되거나 읽기 후에 기억이 더 잘 난다. 앞의 훑어보기 과정을 거치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질문하기의 과정은 앞으로 교과서나 책을 읽을 때 주의집중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의문이 나는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해도 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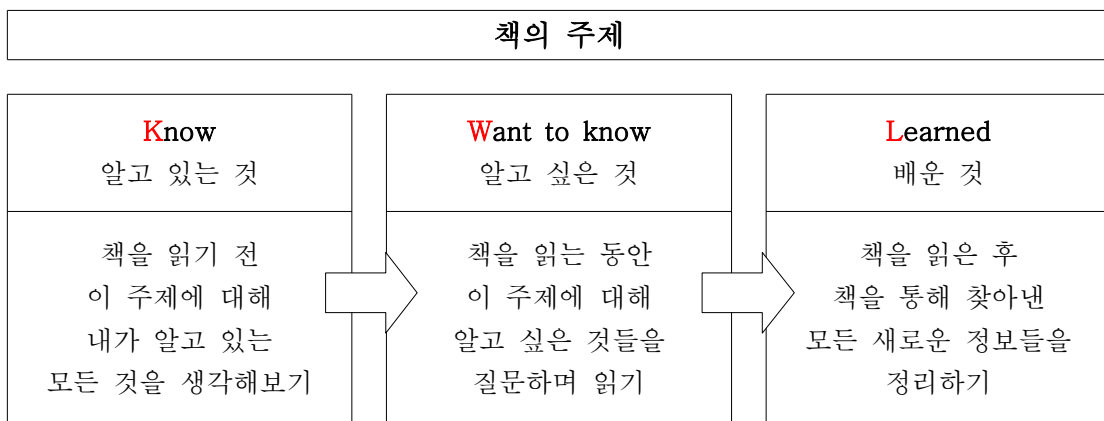
(3) 읽기(Read)

- 공부할 책이나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 교과서나 책 내용을 정독하여 꼼꼼하게 읽어나가면서 앞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읽는 것이다.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색깔 펜 등으로 나만의 중요표시를 해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읽은 내용을 다시 보게 될 때,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쓰기(Write)

- 읽은 내용의 요약정리 등을 하는 것. 읽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전체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10줄 이내로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서 보았을 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교과 학습에 필요한 읽기 능력, 종합적·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등을 기를 수 있다.

3) KWL



주제		
K-알고 있는 것 ("What I Know")	주제를 선택한 이유 ① ②	
범주화 (종류 나누어 묶기)		
W-알고 싶은 것 ("What I Want to Know")	L-배운 것 ("What I Learned")	

11강. 그림책의 이해

1. 그림책의 특징과 가치

1) 그림책의 특징

- 첫째, 유아 그림책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전달자는 성인이나 피전달자는 유아들이다. 자칫하면 성인에게 보기 좋고 공감되는 성인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기 쉬운데, 이 점이 유아 대상의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따라서 유아 심리발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뒷받침과 더불어 독자인 유아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둘째, 유아 그림책은 아직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거나 갓 배우기 시작한 단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가 아닌 시각적 방법에 의존하여 이해시키는 ‘시각언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이며, 아직 글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에게도 그림은 글자와 마찬가지로 언어이다. 유아에게 있어서는 글보다는 그림이 더 확실한 소통매체인 것이다.

- 셋째, 유아 그림책은 인간이 최초로 접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유아는 자기중심적 심성을 강하게 띄며 유아가 인지하는 세계는 유아 자신 주변에 한정되어 있다. 주변 세계를 시각적으로 접근시켜 인지 발달에 큰 자극을 준다. 그림책은 비록 한정된 지면을 통한 시각적 매체이지만, TV에 비하여 정독성, 다독성, 다양성으로 유아의 정서나 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TV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은 이렇듯 우리에게 친숙하고 대중화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그림책의 가치

- ① 그림책은 독자가 그림을 봄으로써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② 그림책은 독자가 문해 기술과 사고 기술이 생기도록 실습할 기회를 준다. 즉 그들이 글씨를 읽기 전에 그림책을 읽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데, 읽기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시킬 수 있다.
- ③ 독자가 글씨를 못 읽더라도 그림을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④ 주인공과 등장인물에 더 쉽게 빠져들고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이야기 문법, 이야기 스키마, 이야기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⑥ 독자가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그래서 언어기술이 세련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⑦ 그림 작가가 그들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미술적 요소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 즉 미술적·예술적 요소를 감상하면서 간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 ⑧ 그림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⑨ 그림책을 들음으로써, 정서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으며, 이야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더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그림책의 종류

1) 그림책의 종류

(1) 판타지 그림책

- 판타지 그림책은 상상을 주제로 현실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소재나 대상, 사건의 중심이 되는 그림책을 말한다. 판타지 그림책의 특성은 자연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마술, 말하는 동물이나 무생물,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등을 말할 수 있다.

- 판타지 그림책의 배경은 현실 속의 시간과 공간이 연계되어 있으며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마술 통로,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마술적 모험이 현실과의 대비를 만들어낸다. 다른 세계 혹은 이차적 세계는 사실적 시간과 상관없는 고유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판타지 그림책의 주제들은 대부분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그림책 속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기도 하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준다.

- ▶ 제임스 도허티 <앤디와 사자>
- ▶ 모리스 샌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
- ▶ 레오 리오니 <새앙쥐와 태엽쥐>, <파랑이와 노랑이>
- ▶ 윌리엄 스타이그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 ▶ 버지니아 리 버튼 <작은 집 이야기>
- ▶ 존 버닝햄 <지각대장 존>, <알도>
- ▶ 앤서니 브라운 <고릴라>, <터널>

(2) 사실주의 그림책

- 생활동화란 유아의 생활 경험을 소재로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이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다룬다고 하여 사실동화라고 부른다. 생활동화는 동시대의 또래 유아나 어린이들의 생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유아들은 마치 자신이 등장인물인 것처럼 느끼며 감정이입을 통하여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 유아들은 생활동화를 통해 다른 유아들도 자신처럼 기뻐하고 슬퍼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며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한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유아들은 그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동화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 ▶ 에즈라 잭 키츠 <휘파람을 불어요>, <피터의 의자>
- ▶ 물리 뱅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 ▶ 피터 레이놀즈 <점>
- ▶ 쓰쓰이 요리코 <이슬이의 첫 심부름>
- ▶ 베라 윌리엄스 <엄마의 의자>
- ▶ 로버트 먼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 ▶ 샘 맥브래트니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3) 옛이야기 그림책

- 옛이야기의 뿌리는 기존의 민담, 신화, 전설, 우화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구전, 채록, 정착화 과정을 거쳐 구전동화로 현존하게 된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을 전래동화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민담이 그림책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로 창세 신화와 건국신화가 있다. 서구의 신화는 기독교 창세신화,

그리스·로마신화가 있다. 전설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와 자연물, 생물, 무생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 우화는 교훈과 도덕을 담은 간략한 동물 이야기이다. 동물이나 무생물에게 인간 성격을 부여하고 교훈성을 중심으로 인간성을 풍자한다. 옛이야기는 작가마다 그림의 표현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옛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은 어린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며 모험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린이의 용기를 고양시켜준다.

- ▶ 조대인, 최숙희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 ▶ 이미애, 이억배 <반쪽이>
- ▶ 신세정 <방귀쟁이 며느리>
- ▶ 권문희 <줄줄이 켜 호랑이>
- ▶ 양재홍 <재주 많은 다섯 친구>
- ▶ 정하섭, 이춘길 <열두 띠 이야기>
- ▶ 김향금, 이영원 <신랑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

(4) 정보 그림책

- 정보그림책은 독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한 장르이다. 정보그림책에 대한 접근법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그림책을 아동문학으로 보는 관점, 교수·학습매체로 보는 관점, 그리고 시각매체 혹은 예술의 한 장르로써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

- 아동문학적 관점은 정보그림책이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감동체계에 호소하며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이 함께 작동될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고 본다. 좋은 정보그림책은 독자로부터 흥미와 활발한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좋은 학습매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 이엘라 마리, 엔조 마리 <사과와 나비>
- ▶ 유애로 <쪽빛을 찾아서>, <갯벌이 좋아요>
- ▶ 필립 세들레츠키 <아기 세모의 세 번째 생일>
- ▶ 로이스 렌스키 <칙칙폭폭 꼬마 기차>
- ▶ 에릭칼 <배고픈 애벌레>
- ▶ 이억배 <개구쟁이 ㄱ ㄴ ㄷ>
- ▶ 최숙희 <행복한 ㄱ ㄴ ㄷ>

2) 글과 그림의 관계

(1) 구체관계

- 그림동화에서 글과 그림이 동일한 정보와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글과 그림이 서로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관계는 글에 나타난 상황, 등장인물의 행동 방식이나 심리, 글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과정이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거나 그림이 글의 상황을 집약하여 보여줌으로써 글이 그림의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오소리네 집 꽃밭』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불어오는 회오리바람에 데굴데굴 날려 갔어요.”라는 글의 내용을 구체화한 그림을 볼 수 있다. 회오리바람이 굵은 먹선의 질감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안에 주변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담겨져 있으며, 오소리 아줌마는 원근법적으로 표현되어 얼마나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독자는 이를 통해 글의 상황을 보다 잘 알 수 있게 된다.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헬렌 옥슨버리 그림/ 유진 트라비스 글)

사건의 전개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아기 늑대 세 마리는 벽돌집을 지었답니다.” 라는 글의 내용은 그림을 통해서 벽돌을 이고 나르며 시멘트를 정성스럽게 발라 집을 짓는 아기 늑대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2) 보완관계

- 보완관계는 글과 그림이 같은 방향으로 서사를 전개해 가면서 글에 없는 정보가 그림에 제시되거나 그림에 없는 정보가 글에 제시되기도 하는 경우이다. 그림은 글로 표현될 수 없는 조형적 요소를 지녔으며 글은 이미지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매체 특성을 살려 조화롭게 배합되면 글과 그림 각각이 지닌 것 보다 풍부한 언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한 서로 중복된 요소를 배제하고 표현하므로 글과 그림 중 어느 한 쪽이 생략되면 의미 파악이 어렵다. 글과 그림의 보완관계는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하여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글, 그림)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라는 글 텍스트의 내용만을 봐서는 맥스가 어떤 장난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림을 통해서만이 맥스의 장난을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글과 그림의 구조적인 배치, 그림 크기의 변화, 그림 속 세부를 통한 시공간적 흐름의 변환 등 그림 텍스트를 통한 해석적 공백이 깊은 만큼, 독자는 글과 그림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서 의미를 구성해나가야 한다.

『초록꼬리』 (레오 리오니 글, 그림)

그림이 이전 글 텍스트의 내용을 확장하여 보여주는 경우로, 글과 그림이 번갈아 진행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마디 그라 해보자!”며 “들쥐들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라고 서술된 부분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그림을 통해 마디 그라 축제에 대해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들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3) 반어관계

- 반어관계는 글과 그림의 내용이 모순됨으로써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이다. 그림동화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예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글과 그림의 서술 내용을 서로 일치하지 않게 설정해 이 사이에서 오는 긴장감을 극대화하여 오히려 글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도 한다.

『내 멋대로 공주』 (배빗 콜 글, 그림)

등장인물부터 모순되게 설정되어 있는데, 흔히 공주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와는 달리 뿔뿔 청바지 차림으로 무시무시한 애완동물들과 자유분방하게 어울리며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공주가 등장한다. 글과 달리 그림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며 찢찢매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나타난다.

『알도』 (존 버닝햄 글, 그림)
글에서는 “가끔은 엄마랑 놀이터에도 가고 어찌다가는 외식도 해. 그럴 때에는 정말 신이 나지.” 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그림에서 주인공의 표정은 전혀 즐겁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시선이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모순된 글과 그림의 전개를 통해서 독자에게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는 다른 숨겨진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4) 대위관계

- 대위관계는 글과 그림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 글과 그림이 서로 종속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며 그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로지의 산책』 (팻 허친즈 글, 그림)
글에서는 로지의 산책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전개되는 한편, 그림에서는 로지를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며 따라가는 여우가 계속되는 실패를 겪는 유머러스한 상황을 복잡하고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여우와 로지의 두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대위적으로 어울리면서 긴장과 웃음을 유발하며 제 3의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창출되게 된다.

『설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 (존 버닝햄 글, 그림)
왼쪽 페이지에서 글과 그림이 함께 나타나며 현실 세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그림만 나타나며 상상 속 환상 세계의 이야기가 전개됨으로써 한 그림동화 내에서 두 장르의 대위적인 어울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 간에 접점이 형성되지 않은 채 전개되는 그 지점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제3의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창출된다.

12장. 책 읽어주기

1. 책 읽어주기

1) 책 읽어주기의 가치

- ① 책 읽기를 통해 아동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 ②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 ③ 새로운 단어의 습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④ 문자언어의 시·공을 초월한 탈맥락적 특성을 배운다.
- ⑤ 책 읽기는 이후 학교에서 형식적 읽기교육에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⑥ 너무 어려워서 어린이 스스로 읽기 어려운 책이나, 어린이가 갖기 어려운 책 또는 아주 좋아 놓치면 안 될 책을 접하는 기회가 된다.
- ⑦ 읽어주기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며 사회화 과정이기도 하므로, 어린이들 사이에, 또 교사와 어린이 사이에 정서적 일치감과 안정감을 갖게 한다.
- ⑧ 이야기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여유를 주는 경험을 한다.
- ⑨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여 어린이가 더 읽고 싶도록 동기화한다. 읽기에 열의를 갖게 하여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고조시키고 수준 높은 문학을 위한 취향을 개발시킨다.
- ⑩ 이야기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한다.
- ⑪ 듣기 능력과 태도가 신장되며, 읽기에 대한 동기가 증진되고 창의적 쓰기의 계기가 된다.

2) 책 읽어주기의 교육적 효과

- ①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 책은 무엇보다도 읽는 아이의 흥미가 유발되어야 한다. 책을 읽게 하거나 책을 사주기만 하고 그대로 두면 그 날 이후에는 흥미를 갖지 않게 된다.
- ② 책을 읽어 가는 동안 아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크게 발동한다. 아이가 혼자 책을 읽으면 모르는 부분도 많고 집중이 되지 않아 책 내용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이끌리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본능인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게 발동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된다.
- ③ 아이들이 차츰 책과 가까이 하게 된다. 선생님이 매일 재미있는 책을 잠깐씩이라도 읽어주면 아이들의 태도는 금방 달라진다. 아이들은 금방 선생님을 따라서 책을 가까이 하게 된다.
- ④ 언어 표현력과 사고력이 크게 늘어난다. 언어의 기본은 듣거나 말하는 것 그리고 쓰거나 읽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을 접하게 됨으로써 가능하다 새로운 표현은 책을 자주 읽으면 저절로 익혀진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사고력이 다양해지고 또한 깊어진다. 이것은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에 이끌려 그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⑤ 집중력이 생긴다. 학습은 우선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숙달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이끌리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주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면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에 빠져들고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 집중하는 습관이 저절로 길러진다.
- ⑥ 아이들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성격이 좋아진다.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좋은

책에 흥미를 느끼고 위안으로 삼아 정서가 풍부해지는 것이다.

3) 책 읽어주기 방법

- ① 교사는 아동에게 그림책을 읽어 줄 때 우선 아동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이 교사의 책 읽어주기 활동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집중할 수 있고 책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교사는 아동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미리 보기와 같은 사전 활동을 통해 아동이 그림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사고과정을 도와준다.
- ③ 귀로 듣는 언어체험을 하라. 교사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 속의 의성어나 의태어가 지닌 소리 리듬을 실감나게 재현함으로써 아동에게 문학적인 언어 리듬과 언어 감각을 갖도록 한다.
- ④ 과도하게 질문하지 마라. 교사는 그림책 읽어주기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바의 언어 경험 독서체험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⑤ 느낌을 강요하지 마라. 아동이 그림책의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하지 않고 교사가 바라는 특정 감정을 강요하는 것은 듣기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다.
- ⑥ 교사가 개입하지 마라.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아동이 그림책과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자 그림책을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욕심을 내어 내세운 잡다한 목적들은 아동에게 그림책 본래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림책은 아동에게 한없이 즐거운 것이어야 하고 또 그림책은 교과서도 문제집도 아니다. 그러니 아동의 입장에서 읽어 주어야 한다.

2. 책 읽어주기 활동

1) 책 읽어주기 활동의 절차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지식 활성화 • 제목이나 표지 그림보고 예측하기 • 훑어보기
읽어주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읽기 • 함께 읽기 • 쉬어가며 읽기 • 가리고 읽기
독립적 읽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히 읽기
반응하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독후활동 하기 • 독서일지 쓰기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하기

(1) 준비 단계

- 준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사전지식 활성화와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읽기 성취도가 낮은 아동들에게 읽기 전 활동은 더욱 중요하다. 아동이 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는 준비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이 책 표지 그림을 보게 하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게 한다. 준비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사전지식 활성화, 예측하기, 훑어보기 등을 들 수 있다.

(2) 읽어주기 단계

① 시범 읽기

- 교사는 책의 글자와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야기 내용에 맞게 몸짓, 목소리, 표정 등을 실감나게 바꾸면서 흥미 있게 읽는다. 이때 아동들은 청중이 되어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다. 시범읽기에서 교사는 이야기의 전개와 내용에 적절한 감정을 넣어 읽음으로써 문학적 언어의 특성을 깨닫도록 한다. 하지만 지나친 기교나 연극적 제스처, 성우 같은 능란한 구연보다는 교사의 따뜻한 목소리와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교사는 시범 읽기 할 때 큰 책이나 실물 화상기를 활용하여 삽화와 글자를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② 함께 읽기

- 교사가 읽는 것을 아동이 따라 읽거나 교사와 아동이 번갈아 읽어도 된다. 함께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지 않고 반복적인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책이 적당하다.

③ 쉬어가며 읽기

- 교사는 질문을 하며 책을 읽는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각 학생들은 동기를 불어넣고 지적인 자극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교사가 효과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떤 주제에 대한 아동의 선행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에게 읽기 동기를 부여하여 글의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고, 초점을 두어 읽도록 해주어야 한다.

④ 가리고 읽기

- 책에서 중심 어휘나 새로운 어휘 등을 가려 아동이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예측하게 한다. 교사는 이야기에서 미리 핵심적인 단어를 선별해두고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 전체를 칠판에 제시한다.

(3) 독립적 읽기 단계

- 독립적 읽기를 할 때는 목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읽어준 책을 학생들에게 각자 나눠주고 학생들은 조용히 책을 다시 읽어본다. 같은 책을 여러 권 준비하지 못할 경우는 교사가 책을 인쇄물로 만들어 배부하거나 돌려보기를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순서를 정해준다. 독립적 읽기를 하는 것은 교사가 읽어준 책을 스스로 읽어봄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하고 목록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인 목록을 하게 되면 어린이가 오랫동안 독서하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

(4) 반응하기 단계

- 교사가 학생들에게 읽은 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중심으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책 읽기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하는 즐거운 과정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고 난 후의 독후활동으로

쓰기 중심의 활동만이 아닌 미술, 음악, 체육활동 등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

- 독후활동은 책의 내용에 맞게 1~2가지 선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아동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하기 단계의 활동으로는 중요한 장면(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장면)을 그리고 글쓰기,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하기, 책 만들기, 마인드맵으로 책 요약하기, 새로 배운 낱말로 짧은 글짓기 등의 활동이 있다.

(5) 정리 및 평가 단계

- 정리 및 평가 단계에서는 반응하기 단계에서 활동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자기 평가서를 작성해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료로 삼는다. 평가방법으로는 교사 관찰평가와 아동의 자기평가, 작품을 통한평가, 아동과의 면담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책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해 교수학습활동에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지필평가보다는 교사가 적절한 질문을 하고 아동이 구술로 답하는 면담형식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13강. 아동문학의 특징

1. 아동문학과 교육

1) 아동문학의 정의

- 아동문학이란 작가가 어린이와 동심을 그리는 성인을 독자로 쓴 동시, 동요, 동화, 아동소설, 아동극 등 예술성을 기저로 한 모든 장르의 창작품 이라고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어린이를 독자로 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는 발달단계로 보아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 교육성이라는 요소가 첨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문학은 문학의 본질인 예술성과 교육성이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

2) 아동문학의 내적 구성원리

(1) 어린이를 위해 생산하는 문학이다.

- 아동문학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층위가 다른 문학이다. 아동문학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위한 문학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전해주고 싶고 또 어린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문학을 어린이에게 주는 문학이다. 아동문학의 특수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로서의 고유함, 어린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규정된다.

(2) 아동문학은 타자로서 어린이를 구성하는 문학이다.

- 아동문학의 어린이는 실제의 어린이를 전제하고 있으면서 어른의 관념에 의해 구성된 생산물이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의 특별한 사랑과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정보와 지식을 결핍한 존재로 어른의 세계와 격리되고 구별된다. 동시에 성장하는 어린이는 잠재적인 어른이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어른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어른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그래서 아동문학 속 어린이는 어린이이면서 어른이다. 어른이 구성한 어린이는 어른에게 어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들고 어른의 바깥에 있는 어린이를 자신과 분리해서 인식하기 위해 구성된 타자이다.

- 아동문학은 어린이 주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타자를 이식하고 내면화하게 하는 타자화 전략을 수행하는 장치로서의 문학이다.

(3) 아동문학은 이원적인 수신자를 향한 이중의 발화 양식이다.

- 타자로서의 어린이는 이중적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어른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다운 것으로 가정된 것이다. 아동문학의 내포독자는 어른과 어린이를 모두 내포한 이중적 독자이다. 그래서 두 개의 내포 독자를 향해 발화하는 아동문학은 이원적인 지향성을 갖는 이중적인 발화 형식의 문학이다.

(4)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이중적으로 구성한다.

- 아동문학의 이중적 발화는 아동문학 안에서 어린이를 이중적으로 구성한다. 아동문학의 어린이는 이중적 캐릭터를 갖는다. 동물이면서 사람이고, 로봇이면서 사람이고, 그리고 어린이이면서 어른이다. 아동문학 속 어린이는 권력에 대한 위치도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권력 밖에,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안에 이중적으로 위치한다. 그것은 아동문학의 어린이가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 이원적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문학 속 이중적인 위치의 어린이는 식민주의 문화가 구성하는 식민지 주체의 양가성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5) 아동문학의 표지들은 언제나 이항 대립적이면서 양가적이다.

- 아동문학의 이중성과 양가성은 아동문학의 모든 특징적인 표지들이 이중적이고 양가적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아동문학은 반복되는 ‘집-바깥’의 패턴, 단순성과 덜 단순한 텍스트 이면의 감춰진 그림자, 교훈성과 즐거운 전복 등 모든 표지들을 강박증적인 이항 대립적 구조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적인 이항은 아동문학 안에서 언제나 양가적으로 구현된다.

(6) 아동문학의 혼종화는 아동문학을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이끈다.

- 아동문학의 양가적인 이항성은 필연적으로 혼종화를 양산하는 문학이다. 아동문학 속 어른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 다시 말해 보수적인 세계와 전복적인 세계는 언제나 양가적으로 혼종화 된다. 어른 세계와 어린이 세계, 아동문학 속 타자로서 구성된 어린이와 실제 어린이 사이의 지속적인 불일치는 이항대립적인 두 세계의 교섭과 혼종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한 불일치와 양가적인 혼종화가, 다시 말해 어른으로부터 나온 어린이 세계와 어린이가 스스로 확인하는 어린이의 세계의 불일치가 아동문학을 지속적으로 생산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3) 아동문학의 교육적 기능

- ① 아동문학작품은 즐거움을 준다. 어린이들이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 때문이다.
- ② 아동문학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 훌륭한 문학작품은 병들고 속세에 찌든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 ③ 동화나 아동소설은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체험하도록 도와준다. 책을 통한 간접 체험은 폭넓은 인생을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자극을 주기도 한다.
- ④ 아동문학작품은 생활지도의 역할을 담당해 준다. 어린이들은 문학경험을 통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며 스스로의 행동 방향을 모색하게 되므로 무언의 생활지도를 해낸다.
- ⑤ 아동문학작품은 창의적 활동을 유도한다. 어린이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훌륭한 생각들을 계발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끊임없이 유도해야 한다.
- ⑥ 아동문학작품은 아름답고 선택된 언어로 구성되어있다. 아름답고 풍부한 언어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언어능력을 확장하고 아름다운 심성이 된다.

2. 아동문학의 특징

1) 아동문학의 특징

- ①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다.
- ②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 많다. 단순한 것이 많은 이유는 아동들의 생활이 어른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 단순성은 작품의 외형에도 나타나서 짧은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 ③ 대상 독자의 계층이 많고 작품 내용의 난이도 차가 심하다.

- ④ 아동문학은 목적의식에 의해 제작되는 일이 많다. 즉 아동의 성장에 좋은 양식이 되기 바라는 의식이 작가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 ⑤ 그림이 어른의 것에서 보다 중요시 된다.
- ⑥ 주인공들의 정신적 목상이나 사려보다는 행동을 강조한다.
- ⑦ 아동문학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 ⑧ 아동문학은 공상과 상상의 문학이다. 공상과 상상은 어린이들의 첫째가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로움의 증거이다.
- ⑨ 아동문학은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아동들의 특징인 단순함, 무의식의 노출, 신선함을 그 생명으로 한다.
- ⑩ 아동문학에서도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다룬다.
- ⑪ 아동문학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있어야 할 가능한 세계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 ⑫ 아동문학은 문학의 흥미와 쾌락을 통해 문학성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2) 아동문학의 기능

- 상상력을 제공하는 아동문학작품을 읽고 아동들은 공상의 세계에 들어가 무의식과 이야기하면서 성장불안을 치료할 수 있다. 즉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 죄책감 등을 동화의 내용 속에서 해소하게 하여 혼돈된 감정은 안정을 찾게 하며 성격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욕구 만족의 갈등, 즉,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의 승인 간의 균형을 위해 갈등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직접 ·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동들의 소원과 욕구가 이야기를 통해 대리적으로 충족되기도 한다.
-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며 인간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시켜 준다는 것이다. 좋은 작품은 장소나 시대를 옮겨주며 모험, 흥분, 여러 장애와의 갈등 등 생생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경험을 확대시키고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회의 구조와 방향을 알게 된다.
- 현실 생활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을 체험시켜 준다. 아동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풍부하고 성숙한 삶의 방법을 체험하며 성장의 욕구를 만족시켜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경험은 아동문학작품을 통한 대리 경험으로 아동들은 작품 속에서 문제와 만나지만 그것은 타자의 문제이며 문제에 관여하지만 위험이나 희생 없이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현실에서 대면하게 되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동문학작품은 삶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동으로 하여금 고려해 보지 못했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즉, 다른 삶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 그들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은 사회연구에까지 확장되어 역사적 배경과 시대를 이해할 수도 있다.
- 아동문학작품은 아동의 윤리기준과 이에 바탕을 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윤리 도덕을 미적 인식과 감동에 의해 전달하는 것은 아동문학의 기능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윤리도덕을 전달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아동이 글 전체를 통해 느끼도록 해야 하며 좋고 나쁜 것을 직접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책은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고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진리와 정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14강. 동화 지도방법

1. 동화 지도방법

1) 동화의 특성-내면구조의 특징

(1) 교육성

- ① 건전한 사고와 사상 감정을 체득한다.(건강한 인격)
- ② 거칠고 야한 말보다 부드럽고 순화된 말로 된 작품이어야 한다.
- ③ 절망보다는 희망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 ④ 갈등보다는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가 들어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 ⑤ 미움보다는 사랑과 자기희생의 모습이 들어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 ▶ (비교) 교훈-작품 배후에 보이지 않게 깔릴 뿐 교훈 자체가 표면에 드러나면 문학작품으로써 격을 잃은 것이다.

(2) 예술성

- ① 작품 내용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기교나 수법, 특히 판타지를 구축하거나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요구된다.
- ② 예술성이 높은 작품일수록 독자에게 주는 감동도 크다.
- ③ 개연성과 참신성을 가져야 한다.

(3) 재미성

- ① 독자를 작품세계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말한다.
- ② 어린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 소재이어야 한다.
- ③ 오락적 재미보다는 예술적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4) 이상성

- ① 작가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관계된다.
- ② 인간이 가야 할 세계나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 담겨야 한다.
- ③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가에 대하여 은연 중에 암시되어야 한다.

2) 동화의 특성-외형구조의 특징

(1) 단순성

- ① 줄거리의 구조가 단순해 아무나 한 번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 ② 잘 된 작품일수록 줄거리의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역시 선이 굵고 갈등 등의 기복이 뚜렷하다.
- ③ (비교) 단조로움-밋밋함을 말한다.

(2) 소박성

- ① 소재의 소박성을 지녀야 한다.

- ② 보편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3) 명쾌성

- ① 문장표현과 사건의 전말 처리가 명쾌해야 한다.
- ② 평이하면서도 정확하여 의미전달에 모호함이 없는 문장이어야 한다.
- ③ 사건의 전개와 결말 처리가 분명해 다 읽은 후 미진한 구석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어려운 낱말,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서술, 관념적 추상적 언어유희,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들어가는 복잡한 구문의 문장은 피해야 한다.
- ⑤ 사건의 전개가 뚜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며 결말 처리가 선명해야 한다.
- ⑥ 읽고 난 후 흐릿한 통쾌감이나 안도감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3) 동화 지도방법

- 읽기 전 배경지식 활성화 → 어떤 책인지 알기 →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 → 중요한 세부사항 알기 → 바른 표현 익히기 → 어휘력 기르기 → 토의하기 → 정리하기

(1) 읽기 전 배경지식 활성화 시키기

- 배경지식(스키마)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구조 또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의 총체이다. 글의 의미 구성은 독자의 배경지식, 읽는 목적, 읽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글을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문자의 단순 번역이나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독자들의 기존지식, 문화적 배경, 흥미 등과 같은 스키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 어떤 책인지 알기

- 표지, 출판사, 인쇄 상태, 디자인, 지질, 머리말, 작가 후기를 살펴보도록 한다.

(3)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

- 작가의 생애, 문학관, 문학적 특성 등

(4) 내용 확인: 중요한 세부사항 알기

- ① 등장인물 파악하기: 마인드 맵, 등장인물 사전, 그림으로 그리기
- ② 배경 알기: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기
- ③ 사건 파악하기: 마인드 맵, 사건 지도, 글·그림으로 나타내기
- ④ 해결 방법 알아보기: 나와 비교하기

(5) 바른 표현 익히기

- 밑줄 긋기, 옮겨 쓰기, 낱말 바꾸기, 모르는 말 사전

(6) 어휘력 기르기

- 사전 찾기, 사전 만들기, 짧은 글짓기, 연상되는 낱말 찾기, 관계 있는 낱말 채우기, 의미지도 그리기 등

(7) 토의하기

- 나와 비교하기, 배울 점을 말해보기

(8) 정리하기

- 독서 감상화, 독서달력, 책받침 만들기, 책 소개글 쓰기, 책 표지 만들기, 독서 감상문 쓰기

2. 동화 지도의 실제

1) 동화 꼼꼼하게 읽기

-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 동화분석 독서 실제 → 작품 분석의 실제 → 작품 분석의 세부적인 질문 던지기 → 종합정리

(1)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 ① 꼼꼼하고 치밀한 독서 계획을 세운다. 개념을 정리하고, 구성, 문체, 인물의 성격 등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져서 평가한다.
- ②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석된 것을 바탕으로 대상의 정당성, 적절성, 가치 및 우열을 평가한다. 이때 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 ③ 문학은 작가의 정신적인 창조 행위의 소산물이라는 점에서 문학작품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 ④ 모든 문화적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 역시 당대 시대적인 상황물이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사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 ⑤ 문학작품의 심미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차원 (구조, 문체, 주제, 시점 등)에서 접근해 본다. 문학작품은 비문학적글쓰기 양식에 비해 고도로 정제화 된 언어적 구조물이다.
- ⑥ 문학작품은 작가의 계급적 이데올로기의 투영물이라는 점에서 문학작품의 계급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2) 동화분석 독서 실제

[질문 던지기]

- ① 아동 시점: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인가?
- ② 구조의 완결성: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이 있는가? (안정감, 통일성, 상황설정의 적절성)
- ③ 전달하는 언어는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④ 문체는 평이하고 정확한가?
- ⑤ 정서의 안전성(믿음이 가는 결말처리)이 있는가?

(3) 작품 분석의 실제

[작품 구성 따져 보기]

- ① 먼저 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다.
- ② 중심이 되는 틀을 중심으로 읽는다.
- ③ 세부적인 중심 틀을 중심으로 읽는다.
- ④ 전체적으로 생각을 종합해본다.

(4) 작품 분석의 세부적인 질문 던지기

- ① 무슨 이야기인가?
- ②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떠한가?
 - 삶의 태도, 외모, 직업, 말투, 특이한 행동이나 버릇은 무엇인가?
 - 주인공은 그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가?
- ③ 문체는 어떠한가? 지루한가? 역동적인가? 간결한가?
- ④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제목의 참신함, 소재의 특이함 등
 - 문체의 탁월함, 구성의 묘미(드라마틱한가? 희극적인가?)
 - 정확한 정황 묘사, 반전의 묘미, 묘사의 묘미, 인간 심리나 인물 성격 탐구, 새로운 지식의 정보 등
- ⑤ 내가 작품 속의 인물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 ⑥ 언어 美: 지나친 단순화나 감상이 드러나 있지 않은가?
- ⑦ 삶에 관한 의문 유추하기 또는 다른 작품과 관련 지어 비교해 보기
 - 자유, 죽음, 삶, 자아, 자연의 존재 등

(5) 종합 정리

15강. 동시 지도방법

1. 동시 감상교육의 내용

1) 감상 영역

- 초등학교 동시 감상교육에서는 문학의 세 주체인 작가-작품-독자 중 작가의 몫은 작품과 독자보다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 초등학교의 동시 감상교육은 작품과 독자 사이의 역동적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구안이 필요한 것이다.
- 내적으로는 어린이에게 그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을 흥미하게 하여 생활의 눈과 마음을 넓혀 주고 깊게 하며 시를 좋아하는 태도를 길러 주는, 즉, 생활의 시적인 심화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 외적으로는 직접 시를 쓰는 데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의욕을 북돋우어 주며, 시를 쓸 때 생활 감동을 잡는 데 암시를 줄 수 있다.

2) 감상의 심화로써의 창작 영역

- 예술의 체험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현 체험과 남이 드러낸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 얻어낸 가치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체험의 양면으로 이루어진다.
- 이러한 양면은 분명하게 나뉘어 분리된 형태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총체적인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동시의 감상을 통해서 아동은 다양한 문학적인 반응을 하며 나아가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삶의 맥락에 비추어보기도 한다. 그것이 더욱 발전되면 기존의 동시 텍스트를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변형하고자 한다.
- 문학 활동은 감상만을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품 감상을 통한 창작적 글쓰기까지를 포함한다는 교육과정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읽기를 토대로 하여 그 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더 효과적이다.

2. 동시 쓰기지도

1) 동시 쓰기지도 방법

(1) 간단히 행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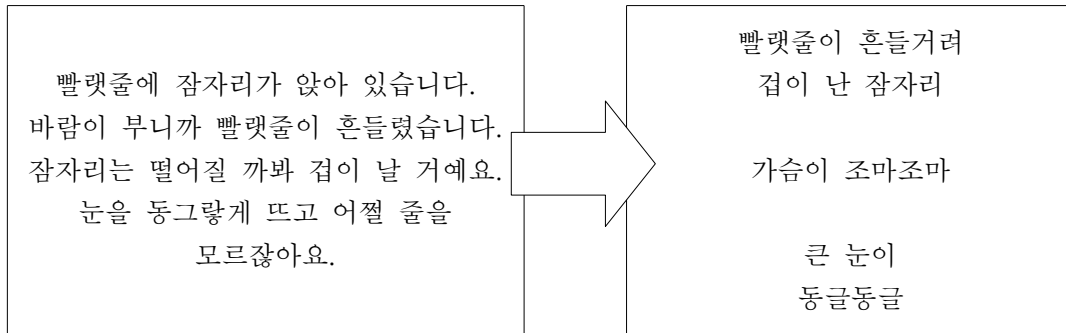
- 아동들에게 시 쓰기에 흥미를 갖고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단한 행시 쓰기를 한다.

나: 나는 비: 비웃이 있다.	나: 나비는 비: 비를 맞으면 아파요.
---------------------	--------------------------

(2) 줄글을 시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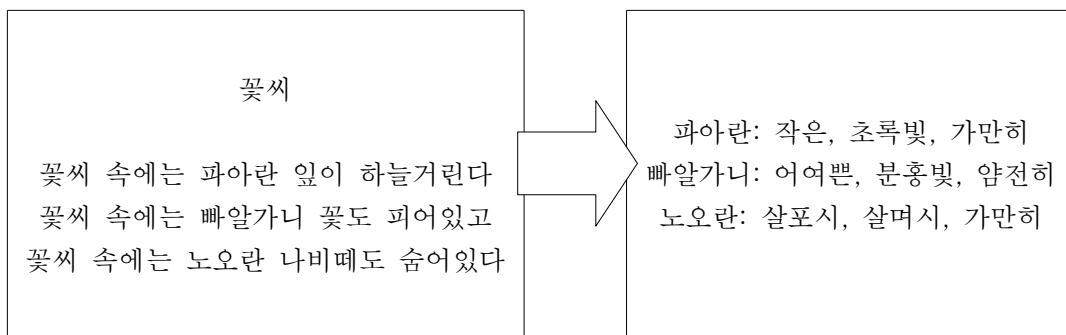
- 아동들이 시를 쓸 때 줄글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 시가 갖는 응축성이나 단순 명쾌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줄글을 제시하여 주고 시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줄글과 시의 차이점도 알게 해 준다.



(3) 패러디 하기

- 시 한 편을 제시하여 주고 밑줄 그은 세 낱말을 비슷한 말이나 다른 말로 바꾸어 시의 분위기를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모둠 학습을 통해 정해진 주제로 시 쓰기

- 각 모둠별로 쓰기 과정에 맞추어 협동하여 시 쓰기를 한다. 이 때 주어진 주제로 시 쓰기를 먼저 한 다음 자유로운 주제로 시 쓰기를 하는 것이 좋다.

- ▶ 소집단 활동
 - 주제 정하기
 - 브레인스토밍 하기
- ▶ 개별 활동
 - 다발 짓기
 - 시 쓰기
- ▶ 소집단 활동
 - 토의하여 고치기

① 주제 정하기

- 행시 쓰기와 줄글을 시로 표현하기 및 패러디하기를 통하여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거부감을 떨쳐 버리도록 한 다음 주제를 차례로 제시하여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따라 시 쓰기를 하게 한다.

- 주제는 주변에서 찾도록 한다. 아동들이 주변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물에서의 느낌을 포착해 보도록 하여, 학교생활에서의 모습도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시 주제: 바다, 운동회, 둘산대교

② 브레인스토밍하기

-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주제와 관련하여 창의적인 사고활동을 하여 모둠원들 모두의 떠오르는 생각을 최대한 많이 나열하게 한다.

돌산대교-돌산-갯김치-매운맛-고추-아들
돌산대교-자동차-여행-기행문
돌산대교-연결-하나-믿음
돌산대교-섬-갈매기-하늘-구름-숨사탕
돌산대교-섬-갈매기-하늘-연-겨울
돌산대교-섬-장군도-수중성-임진왜란-이순신장군
돌산대교-긴 다리-무서움-호랑이-떡-명절
돌산대교-긴 다리-무서움-호랑이-밀림-아프리카-흑인
돌산대교-긴 다리-무서움-귀신-공동묘지

③ 개별 활동을 통한 다발 짓기

돌산대교 - 섬 - 갈매기 - 하늘 - 구름 - 숨사탕
돌산대교 - 섬 - 연결 - 하나 - 믿음

④ 시 쓰기

- 처음부터 완성된 시를 쓰게 하지 않고, 초고 쓰기를 하도록 한다.

돌산대교

여수 앞 바다에
우뚝 솟아 있는 다리

갈매기들 친구 찾아
머리 위에 하늘 하늘

섬과 육지를
양팔 벌려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 하나 되는
믿음직한 돌산대교

⑤ 고쳐 쓰기

-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고쳐 쓰기를 하도록 한다. 먼저 모둠별로 협의하기를 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뺄 것 등을 정하고, 다음으로 오탈자 및 맞춤법을 바로 잡은 후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5) 모둠 학습을 통해 자유로운 주제로 시 쓰기

- 각 모둠별로 자유로운 주제를 정하여 시 쓰기를 한다.
- 주제정하기 → 브레인스토밍 → 글감정하기 → 시 쓰기 → 토의해 고치기

16강. 글쓰기 지도방법

1. 특성에 따른 과정별 글쓰기 전략

1) 계획하기

- 계획하기 단계에서 수행할 과제는 상황 분석과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하는 일이다.
- 글을 쓰기 전에 글쓰기 과제를 분석하고, 목적을 정하며, 독자를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된다.
- 교육적 측면에서 언어활동과 인지 발달의 상호작용하는 면이 있으므로 학습자의 수용에 유의하면서 연습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 계획하기 지도 요소는 ‘쓸 내용 정하기’와 ‘목적, 주제 대상 결정하기’가 있다.
- 글을 쓰기 전 활동을 강조하면서 이 단계에서 화제를 선택하고, 아이디어 수집이나 조직,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고, 독자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쓰기의 형태를 결정하며,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말하기, 그리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목표)를 정하고 독자를 고려하며 글의 종류에 맞게 내용을 생성해야 한다.

2)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생성하기는 필자의 기억에서 생각을 꺼내는 단계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적인 사고이다.
- 필자의 사고 활동으로 참신한 생각이나 기발한 착상을 기반으로 추론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이다.
- 실제로 글을 쓰는 활동에 포함되는 내용 생성하기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활동하는 과정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활동이다.
- 이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 ‘글의 주제를 뒷받침할 소재 찾기’한 결과로 일상생활의 체험이나 생각, 느낌에서 주제에 맞는 내용을 찾도록 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는 주로 자유 연상이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범주에 따라 나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3) 내용 조직하기

- 내용 조직하기는 내용 생성하기와 동시적이고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단계이다. 내용 생성하기 결과 얻어진 자료를 글의 구성 원리와 내용 전개 원리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단계이다.
- 내용 조직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 생성에 따른 아이디어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글을 쓰는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 내용 조직하기에서 필요한 연습은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여 서로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것과 어떤 순서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 내용 조직하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활동으로는 생각그물 만들기과 다발 짓기, 열개 짜기(개요 작성) 등이다.
- 생각그물 만들기과 다발짓기는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좋은 시각화 활동이다. 열개 짜기는 교사가 시범을 보이면서 쉬운 것부터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열개 짜기를 할 때는 글의 전체 구조와 독자를 고려하고, 글의 분량과 조직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표현하기(작성하기)

- 표현하기는 ‘초고 쓰기’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문자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 표현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한 내용을 중심으로 써 나가되 지나치게 깨끗하게 쓰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유롭게 쓰게 한다.
- 열개 짜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쓰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 표현하기 방법으로는 쓰기 전에 먼저 내용을 말로 해 보게 하는 ‘말로 쓰기’나 수사학적 원리나 정확하게 쓰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쪽 내려쓰는 ‘내려쓰기’같은 것이 있다.
- 표현 과정에서 ‘문장쓰기’전략을 활용하여 주술 관계를 일치시키고, 간단명료하게 쓰는 것과 지시어나 접속어의 사용 등을 지도하고, 문장 쓰기를 일련의 글쓰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고쳐 쓰기

- 고쳐 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고정에서 설정한 목적에 맞는지 평가하면서 확인하는 것이다.
- 고쳐 쓰기 활동에서는 글의 내용이나 글 구조와 전체 흐름, 문단 등의 조직과 표현 방식, 맞춤법, 어법 등을 고쳐 쓰는 것이다. 고치는 방식은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낱말 수준으로 하향식 수정이 좋다.
- 두 번 정도로 글 수준과 문단 수준, 문장 수준과 낱말 수준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 고쳐 쓰기는 표현하기를 마친 상태에서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모든 단계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활동이다.
- 학습자들에게 ‘고쳐 쓰기’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인식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필자로서 문제 해결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글을 쓰게 되는 것이다.

6) 평가하기와 조정하기

- 조정하기는 글쓰기를 하는 동안 각 과정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활동이다.
- 조정하기가 인지적 모형의 ‘작문 과정’ 전체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구성활동임에 비해 ‘교정하기’는 글을 쓴 후 고쳐 쓰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평가하기는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글쓰기를 과정 중심으로 접근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정 평가임을 알 수 있다.
- 글을 쓰는 과정에서 평가의 결과로 조정을 하거나 글을 쓴 후 결과물을 평가하여 고쳐 쓰는 것과 연관된 중요한 활동이다.

2. 내용생성하기 전략

1) 브레인스토밍

- 브레인스토밍은 내용 생성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즉흥적으로 주제에 대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활동이다.
-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떠올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둘이서 짝이 되어 특정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는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우에 따라서는 2, 3단계로 나누어 얼른 떠올리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 순서: 검토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다 떠올린 후에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는 활동이다.

화제의 선택 → 화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산출 → 검토

2) 열거하기

- 열거하기는 주제나 범주에 따라 관련 있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 열거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범주를 설정할 때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처음에는 교사가 범주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으나 점차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범주를 설정한 다음에 그 범주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열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범주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이 있든 아니든 생각나는 것을 모두 떠올리는 활동 •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범주에 주어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있는 것을 떠올리는 활동 •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브레인스토밍에 비해 조직적인 경향이 강함

3) 이야기 나누기

-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가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 아이들이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이미 배운 것으로 쓰기에 전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이야기를 나누기 활동은 주로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 어떤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지 각자나 아니면 집단별로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4) 읽기

- 읽기는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을 읽는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이 활동은 비교적 시간이 많고 좀 더 조직적인 글을 써야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읽기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그냥 읽으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읽기 자료가 있는지를 충분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 ① 특정한 자료 하나만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과제를 부여
- ②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 ③ 주제에 따라 읽어야 할 읽기 자료가 다를 수 있음을 적절히 지도

5) 드라마 활동하기

- 드라마 활동하기는 글을 쓸 주제와 관련하여 간단히 드라마 형태로 꾸며보게 함으로써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 여기에서 말하는 드라마 활동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역할 놀이, 무언극, 손가락 연극 등이 포함된다.
- 이 활동은 글을 쓰는 목적이나 독자를 인식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이 활동은 글쓰기 전에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고를 쓰고 교정을 하기 전에 해 보게 할 수도 있다.

6) 명상하기

- 명상하기는 써야 할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을 떠올릴 수 있으며, 글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상을 하거나 상상하는 활동 역시 명상하기에 포함할 수 있다.
- 명상을 잘 하게 하려면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가 산만하지 않도록 하고 시간도 충분히 준다.
- 여러 측면에서 명상을 해볼 수 있도록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7) 경험하기

- 경험하기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직접 글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해보는 것을 말한다.
- 시각적인 경험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져보거나 냄새를 맡아보는 경험을 해 보게 할 수도 있다.
- 다른 활동(전략)도 마찬가지로 글 쓸 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할 수는 없다. 쓰기 과제에 따라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에 한해 경험하기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8) 저널쓰기

- 저널쓰기는 글쓰기와 관련된 활동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 간단한 메모장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쓰기 공책 형태, 또는 완성되었건 미완성되었건 자기가 쓴 것을 모아 놓은 활동철 형태가 될 수도 있다.
- 저널은 글쓰기의 주제를 정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 저널의 형태에는 개인적인 저널, 대화 저널, 학습 저널 등이 있다.

일반저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기록해 둔 것
대화저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내용을 정리해 둔 것
학습저널	쓰기보다는 사회과나 과학과 등의 학습을 위해 기록해 둔 것으로, 그 교과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생각, 관찰한 것

17장. 갈래별 글쓰기

1. 일기쓰기

1) 일기쓰기 단계

(1) 첫째, 일기를 쓸 때 무엇을 쓸 것인지 정한다.

- 일기를 쓰기 위한 글감, 즉 쓸 거리를 찾는 것이다. 학생들은 하루 안의 생활을 언제나 있는 일상적인 일로 지나치기 쉽다. 그러므로 글감을 정할 때 우선 그날 있었던 일을 차분히 되짚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고른다. 글감을 고를 때는 자기가 직접 한 일이나 겪은 일을 글감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기가 겪은 일은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잘 쓸 수 있다.

(2) 둘째, 글감을 표현한다.

- 하루 생활 중에서 글감 즉 주제 및 제목이 결정되면 이를 일기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글감이라도 표현하는 능력이 없으면 일기가 될 수 없다. 먼저 쓸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쓴다. 글감에 관계되는 속담, 격언, 잡지, 책, 선생님의 말씀 등의 정보를 모아서 간단하게 요약한다.

(3) 셋째, 모아진 자료의 순서를 결정한다.

- 모아진 자료를 일의 시간 순서대로 개요를 작성하거나 논리적인 순서를 정한다. 그 다음 자기의 의견을 적는다. 본 일, 들은 일을 일기로 쓰는 것은 자기의 일기라고 할 수 없다. 일기는 그 날 겪었던 일에 자기의 생각을 담은 글이다. 그 날 그 날 경험한 것을 바르게 판단하며 관찰하고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가 있다. ‘기쁘다, 슬프다, 좋다’ 등의 단순한 의견은 점차 깊고 넓게 생각하면서 절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4) 넷째, 정확하고 자세하게 쓴다.

- 하루의 생활을 예사로 넘겨 버리거나 대강 써버리면 글이 이어지지도 않거나와 글감이 바닥나기 쉽다. 글감을 찾지 못하면 하루의 모든 경험이 전부 글감이 된다. 결국 하루의 생활은 글감 없는 연속이므로 바닥난다. 단 한 가지 일이라도 모아진 자료와 생각을 모아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써야 한다.

(5) 다섯째, 솔직하게 일기를 쓰도록 한다.

- 하루의 생활에는 잘못된 일이나 남이 알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도 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마음에도 없는 느낌이나 생각은 오히려 쓰지 않는 편이 더 낫다. 그러나 솔직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써야 할 내용보다는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글감이 확실하지 않거나 있었던 일만 나열하면 좋은 일기 글이 될 수 없다. 일기는 자기 생활의 기록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사실 여부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자기의 잘못이나 부끄러운 일을 솔직하게 쓰게 되면 자기를 반성하는 절실한 계기가 된다. 어떤 제약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쓴다.

2) 일기쓰기 지도 시 유의점

(1) 첫째,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짚어 준다.

- 일기를 쓰기 전에 아이와 함께 앉아서 하루를 차근차근 되짚어준다. 그 날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질문으로 유도한다. 일과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가능하면 그때의 분위기나 상황, 느낌과 생각까지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선뜻 대답하지 못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질문을 반복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질문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거나 비교적 쉽게 대답하면 더 자세히 물어보면 된다. 대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하며 10분 이상 끌지 않도록 한다.

(2) 둘째, 가장 기억에 남는 글감을 하나 고른 다음 제목을 맨 앞에 쓴다.

-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글감을 하나 골라 제목을 정한다. 제목을 미리 정하고 일기를 쓰면서 내용이 흐트러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 섞이지 않게 한다. 제목에 따라 순서에 맞게 차례로 내용을 쓰게 한다. 학생의 글이 조금 서투르거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야단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3) 셋째, 길게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길게 쓰는 일기가 꼭 잘 쓴 일기가 아니다. 내용은 그다지 길지 않아도 아이가 그날 특히 기억에 남거나 쓰고 싶은 일이 있다면 길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두는 편이 좋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그림일기를 쓰는데 아이가 그린 그림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는 선에서 정리하는 편이 좋다.

(4) 넷째, 날씨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한다.

- 그날의 날씨를 한 두 문장으로 쓰게 해도 관찰력과 글감 찾는 힘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된다. 일기를 시작하고 끝낼 때의 시간을 기록하게 하면 글을 쓰며 생각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다섯째,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한다.

- 그 날 그 날 있었던 일을 시간에 따라 짚막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일기를 쓸 때 그날의 일과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일기쓰기를 쉽게 해준다.

(6) 여섯째, 반성문처럼 쓰지 않는다.

- 일기는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지만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가 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한다. 꼭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반성하게 한다면 일기 쓸 때마다 죄인이 된 느낌이 들어 일기쓰기를 두려워하게 되므로 반성문처럼 쓰지 않아야 한다.

(7) 일곱째, 맞춤법, 띄어쓰기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

- 저학년일수록 아직 맞춤법, 띄어쓰기가 서투르기 마련이다. 문법적인 것을 지나치게 요구하면 정작 중요한 내용 쓰기가 맥을 잃게 되므로 아이가 자유롭게 일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틀린 글자와 띄어쓰기를 고쳐 주도록 한다.

2. 생활문 쓰기

1) 생활문 쓰기의 지도요소

(1) 겪은 일 쓰기

- 생활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쓰는 것이다. 경험은 타인이 갖지 못한 자신만의 생생한 체험이 되므로 단순한 사실을 설명하기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은 일을 당시의 느낌이 나타나게 쓰는 것은 독자의 공감을 부른다. 겪은 일에 대한 솔직하고 진실한 이야기가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 된다.

(2) 글감 찾기

- 생활문은 생활 속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것이 글감이다. 그러나 글감을 잡기가 무척 힘이 든다.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므로 생각 속에서 글감을 기억해 내고 꺼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생활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특히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것, 처음으로 느껴보거나 가슴 아팠던 일을 골라 글감으로 잡고 글을 쓴다.

- 글감 고르기의 방법으로는 겪은 일에서 인상 깊은 글감 고르기, 그림, 만화에서 읽거나 들은 내용에서 고르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뉴스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혹은 의문나는 것, 조사 관찰한 내용, 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겪거나 궁금했던 내용, 글이나 매스컴을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 등에서 소재를 고를 수 있다. 한편 중심생각이나 제목이 주어졌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을 글감으로 잡으면 된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전에 했던 일을 떠올리면 된다.

(3) 주제 정하기

- 아동들은 한편의 생활문을 쓸 때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 쓰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여 글의 주제를 나타내도록 한다. 아동들의 글은 제목이 큰 주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주제는 독자들이 글을 읽은 후에 남게 되는 감동으로 집의 기둥과 같다고 한다. 글을 읽은 후 남는 강렬한 인상이 주제로 발전하며 따라서 제목 선정도 중요하다. 생활문을 쓸 때 자신이 쓰는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주제를 명료화하는 좋은 소재를 잡아 알맞은 제목을 선정하는 단계로 진행한다면 독자가 이해할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 자세하게 쓰기

- 글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함이다. 글을 읽는 사람이 의문을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다. 마치 한 편의 그림을 자세히 그리듯 글을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글의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시간의 변화나 공간의 이동에서 일의 순서가 나타나도록 서사적으로 쓰기, 주변 인물의 표정이나 성격,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도록 생각, 느낌을 표현하기, 오감에 의해 느끼고 표현하기 등이 있다. 주변의 환경을 말로 써보기, 대화하는 말의 내용이 들어가게 쓰기 등이 있다.

(5) 대화글로 쓰기

- 실감나는 문장은 글을 읽는 재미를 주고 생동감 있는 글이 되게 하며 덩뎅한 글에는 맛깔 나는 양념의 구실을 한다. 생활문 속에 대화체가 있으면 좀 더 생기 있고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아동들은 단순한 대답을 대화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부분에 어울리는 대화체를 넣도록 한다. 이때는 큰 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차이를 알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마음속으로 한 말에는 작은따옴표를 구체적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부분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또 남의 말이나 속담을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를 쓴다.

(6) 글머리 시작부분 쓰기

- 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글머리이다.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인상적인 첫머리는 독자의 흥미를 끄는 데 충분하다. 생활문의 첫머리는 인물이나 정경의 묘사, 인용하는 말, 대화체로 시작하기, 의성어나 의태어로 시작하기, 설명으로 시작하기, 자신의 의견 주장으로 시작하기, 문제점 제시하기, 최근의 화제 제시하기, 시간으로 시작하기, 계절로 시작하기, 주제나 의미가 담긴 낱말로 시작하기, 장소로 시작하기, 사건으로 시작하기, 대화글로 시작하기, 인용으로 시작하기, 겪은 일로 시작하기, 본 것으로 시작하기, 들은 것으로 시작하기 등이 있다.

18강. 독서 감상문 지도

1. 독서 감상문의 형식

1) 독서 감상문 형식과 내용

(1) 서술할 내용과 서술의 순서

- ① 읽게 된 동기를 적는다.
- ② 책의 저자, 내용 분야, 출판사, 구성, 목차를 기록한다.
- ③ 저자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소개한다.
- ④ 자신이 그 책을 읽을 때의 태도를 쓴다.
- ⑤ 내용상의 성격, 내용 목차를 기록한다.
- ⑥ 책 내용과 책을 읽고 난 다음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감흥, 깨달음을 적는다.

(2) 책의 내용

- ① 장편소설의 경우
 - 줄거리와 주인공이나 특이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감을 적는다.
- ② 단편소설의 경우
 - 인상 깊은 몇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되 나머지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작품집 전체에서 느끼는 소감과 독자로서 판단한 사상을 적는다.
- ③ 시집일 경우
 - 자신이 가장 인상 깊은 시의 한 부분 또는 전문을 소개하고 소감 쓰기를 중심으로 시집에 대한 전체적 소감을 쓴다.
- ④ 에세이류
 - 몇 개의 인상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다. 전반적인 분위기, 사상 등을 같이 나타낸다.
- ⑤ 대중적 교양서
 - 자신의 지식 체계를 전제로 그 책을 대했을 때의 느낌과 새로운 깨달음이나 배움, 사상, 지식 등을 서술한다.
- ⑥ 전문적 도서
 -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비교 판단하거나 자신의 지식체계 속에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서술한다. 따라서 독자 자신의 전문 분야와 아무 관련 없는 도서라도 소견을 쓸 수 있다.
- ⑦ 전기, 다큐멘터리, 논픽션
 - 인물의 사상, 사건의 성격, 내가 알고 있던 기존 지식이나 인식과의 차이, 새로운 깨달음을 서술한다.
- ⑧ 경전류의 고전
 - 경전의 성격과 기본 사상, 그것을 대할 때의 선입관을 쓰고, 읽고 난 뒤의 느낌의 차이, 터득한 진리,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서술한다.
- ⑨ 잡지
 - 관심이 갔던 기사를 중심으로 진술한다. 내용의 진지성이 있는 기사, 흥미로운 기사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룬 기사, 문제성이 있는 기사, 불만스러운 기사, 사진과 화보의 내용과 구성 상태, 목차로써 느끼는 잡지의 느낌, 전체적인 편집 방향에 대한 호-불호의

표명, 제책의 모양, 광고에 대한 소감을 기록한다.

⑩ 명작 고전

- 명작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는다.

2) 독서 감상문 글의 형태

(1) 독서메모, 독서일기, 독서토의를 비롯한 독서활동 사실을 최대한 활용한다.

(2) 전형적인 형태로 쓰기

- ① 2행 표제로 쓰도록 한다.
- ② 책의 일반적인 정보를 밝힌다.
- ③ 읽은 동기를 적는다.
- ④ 줄거리를 요약한다.
- ⑤ 소감 쓰기이다.

(3) 편지 형태로 쓰기

- ① 작가 또는 저자에게 쓴다.
 - 책에 대한 일반 정보는 생략한다.
 - 다른 사람에게 정보의 구실은 회박하다.
- ② 등장인물에게 쓴다.
 - 책에 대한 일반 정보는 생략한다.
 - 다른 사람에게 정보의 구실로는 회박하다.
- ③ 친구나 가족에게(책의 소개) 쓴다.
 - 책에 대한 일반 정보 위주로 쓴다.
 - 다른 사람에게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 전형적 형식을 따른다.
- ④ 함께 읽은 친구에게(내용의 토의) 쓴다.
 - 책에 대한 일반 정보는 생략한다.
 - 다른 사람에게 정보의 구실로는 회박하다.
- ⑤ 장 형식에 구매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접근한다.
 - 줄거리 위주의 글보다는 소감 위주의 글이다.
 -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초보자나 저학년 어린이에게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하는 방법으로 좋다.
- ⑥ 단점
 - 일대일 대화식 내용이 되어서 제3자인 일반 독자
 - (독서 감상문의)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불명확한 내용이 될 수 있다.

(4) 운문으로 쓰는 것의 문제점

- ① 산문 문장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문 형식을 연습하는 것은 오문, 비문, 악문의 습관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
- ② 독서 감상문은 산문적 사실과 논리적 소감을 기록하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이를 운문으로 압축하거나 상징적으로 나타내면 독서 감상문으로써 제 구실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5) '독서논술' 쓰기

- ① 감상문을 논술적으로 진술하는 것
 - 서평적 독후감 쓰기이다.(독서 감상문의 지향점: 서평)
- ② 논술문 훈련에 최적의 방법이다.
- ③ 고학년에 적합, 필수적 방식이다.

(6) 과제 해결식 감상문

- 읽은 책에 대해 지도자가 해당 도서 내용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2. 도서에 따른 독서 감상문 지도

1) 장편 동화의 경우

- ①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의 성격 조명에 대한 소견을 쓴다.
- ② 주제와 작품이 나타내는 사상(이념, 가치관)에 대한 소견을 쓴다.
- ③ 내용 중의 특정 사건에 대한 소견을 쓴다.
- ④ 작품의 구조에 대한 소견을 쓴다.
- ⑤ 작품이 갖는 즐거움에 대한 느낌을 쓴다.

2) 단편 동화집의 경우

- ① 작품집의 형태와 엮은 체재나 성격 배경 등을 소개한다.
- ② 작품들이 갖는 공통성이나 몇 가지 유형을 분류한다.
- ③ 인상에 남는 몇 작품을 거론한다.
- ④ 인상에 남는 작품의 주제, 등장인물, 특정 사건에 대한 소감을 적는다.
- ⑤ 책에 붙은 해설이나 머리말 등의 설명에 대해 공감 여부를 나타낸다.

▶ 피해야 할 일

- ⑥ 특정한 작품 하나만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라도 그 작품의 소재가 되는 작품집을 밝히고 작품집의 형태를 소개하는 것이 적당하다.
- ⑦ 책에 소개된 글을 인용하면서 마치 자기 생각인 양 진술해서는 안 된다.
- ⑧ 저학년이 아니라면 단편동화집을 읽고 한 편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쓰는 것은 피한다.

3) 동시집의 경우

- ① 동시집의 형태와 엮은 체재나 성격 배경 등을 소개한다.
- ② 동시들이 갖는 공통성이나 몇 가지 유형을 분류한다.
- ③ 인상에 남는 몇 작품을 거론한다.
 -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개할 수 있다.
- ④ 암기할 만한 시구에 대한 소감을 적는다.
- ⑤ 시집에 붙은 해설이나 머리말 등의 설명에 대해 공감 여부를 나타낸다.

4) 과학도서의 경우

- ① 책 소개와 읽기의 동기와 과정을 적는다.
- ② 일반적으로 문학도서와 다른 점(특징)과 다른 과학 도서와의 차이점을 적는다.
- ③ 재미(흥미)의 성격, 지적 흥미, 읽어 내는 데 대한 저항 요소를 실토한다.
- ④ 새로 깨달은 사실에 대한 기쁨과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말한다.
- ⑤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소감, 자연에 대한 자신이 갖던 인식의 변화를 적는다.

5) 전기의 경우

- ① 책을 소개하고 읽은 동기와 과정을 적는다.
- ② 일반적으로 문학도서와 다른 점(특징), 다른 인물의 전기와 비교해 본다.
- ③ 대상 인물에 대한 존경심, 비평을 적는다.
 - 공적, 특정 행동이나 말, 사건 등에 대해 공감과 시비를 나타낸다.
- ④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기
 - 다른 전기에서 읽은 인물과 비교한다.
 - 나, 친구, 선생님, 부모, 이웃 사람들과 비교해본다.
 - 유명한 사람(정치가, 연예인 등)과 비교해본다.
 - 배현실의 인물(드라마 주인공, 동화 주인공)과 비교해본다.
- ⑤ 자신이 가진 이상(꿈, 미래상)을 밝힌다.

6) 일관된 한 가지 소재나 주제를 다룬 비문학 도서의 경우

- ① 책을 소개하고 읽기의 동기와 과정을 적는다.
- ② 일반적으로 문학도서와 다른 점(특징), 비슷한 계열의 다른 책과 비교한다.
- ③ 지식적인 책과 가치관에 관한 책과 구별한다.
 - 새롭게 알게 된 지식(상식)에 대한 소감, 진실에 대한 신뢰나 의심이 가는 것을 기록한다.
 - 새로이 깨닫게 된 가치관에 대한 소견, 주장에 대한 공감과 비판을 쓴다.
- ④ 다루고 있는 방면에 대한 관심, 나의 미래상과 결부해 쓴다.
- ⑤ 현실사회에서의 적용, 오늘 현재 적용 여부에 대해 적는다.

7) 그림이야기책을 다룰 경우

- ①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 ② 특정 장면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상상력 발휘하기)를 쓴다.
- ③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적 소견을 말한다.
- ④ 특정 사건이 주는 교훈적 의미를 말한다.
- ⑤ 자신의 행동과 주인공과 비교해 본다.

19강. 독서 전 활동

1. 독서 계획 세우기

○ 학습자가 많은 책 가운데 필요한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 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신의 독서 노트에 붙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더 살펴보게 할뿐만 아니라 선택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한다. 스스로 책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독서 흥미와 경향, 능력에 맞게 책을 선택하여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십진분류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도서를 선택하여 편독을 막아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독파할 수 있는 독서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맞도록 언제까지 어떤 책을 읽겠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 가능하면 이러한 독서의 실천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교사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세워졌던 계획들을 학습자 스스로 세우면서 자신의 개성을 찾고 스스로 흥미와 능력에 맞게 선택하고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효과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많은 책 가운데 책을 고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과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과목별로 4~5권의 책을 추천 받아, 목록별 책을 훑어본 후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많은 책 중에서 책을 고르는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교과 교사는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배려하여 난이도를 다양하게 하여 책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무작정 책을 즐겨 읽기를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재미있는 책을 선택하고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사가 추천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읽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도서를 추천하고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 동기 유발하기

1) 동기 유발

-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인 발달, 지능지수(IQ), 학습경험, 학습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학습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했을 때 심리적인 환경이 학습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심리적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하려고 하는 학습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동기란 여러 행동을 하려는 욕구가 생기도록 하고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내부적 특성이다. 따라서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주위의 환경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습 동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학업 성취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 특히 학습자는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동기가 유발될 수도 있다. 또한 노력이 너무 크거나 성취하기 어려운 결과라면 동기가 낮아진다. 보상과 노력 사이에 이런 관계는 비율이기 때문에 동기는 보상을 늘리거나 노력을 줄임으로써 증가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독서 활동을 하기 전에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은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발달, 독서수준, 책과 읽기에 대한 흥미, 읽으려고 하는 과제 등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학습자는 상황에 맞는 활동이 주어졌을 때 호기심이 생기며 새로운 읽기 과제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일 수 있다.

2) 동기 유발 적용하기

(1) '좋은 책' 발표하기

- 개인적으로 읽은 책에 대해 책의 제목, 저자, 출판사, 간단한 줄거리를 적는다. 그리고 그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유를 쓴다. 이 활동은 교사가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써도 되고 공책을 정해서 해도 된다.
- 상황에 따라서는 '1분 말하기' 형식이 좋다. 먼저 소개하려는 책의 제목과 책의 종류를 말한다. 그리고 책의 특성에 맞도록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고 소개하는 이유를 말하면 된다.
- 다른 학생이 발표한 책 중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제목을 적은 후 언제 읽을 것인지 계획을 짤 수도 있다. 이렇게 읽은 책의 목록이 일정한 양이 넘으면 보상을 하는 것도 독서 활동 촉진에 도움이 된다.

(2) 자기 자신 광고하기

- 자신에 대해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자신의 장점을 정해진 시간(3분 정도)에 10가지 정도 생각해 구체적으로 쓰게 한다. 같은 시간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써보도록 한다. 학습하기보다는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게 할 필요가 있다. 세 항목에서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골라 자신을 소개하면 된다. 말로 해도 되고 신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해 꾸미기를 할 수도 있다.

(3) 인생 설계하기

- 학년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목표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에도 차이가 생기며, 어떠한 목표가 있느냐에 따라 학습 동기의 방향이 달라진다. 인생에 대한 목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식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돕고,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의 필요성을 알고, 독서를 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3. 배경 지식 활성화

1) 배경 지식

- 배경지식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 또는 기억 속에 저장된 경험의 총체이다. 배경지식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다른 배경지식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산촌에 사는 아이들은 버섯을 키우거나 나물을 캐는 장면을 떠올린다면,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지난여름에 놀러 갔던 계곡이나 가을의 단풍이 든 산을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배경지식은 문화와 생활경험, 학습에 따라 달라지며 읽은 내용에 대해 배경지식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같은 글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 학습자에게 독서 전 활동을 통해 글의 화제나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을 조성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다. 배경지식의 활성화는 독해의 기본이다. 학습자는 읽는 내용을 자신의 지식과 자연스럽게 통합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독서 전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배경지식 활성화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데 미숙한 학생들에게 책 읽기 전 준비 과정이나 도입 단계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2) 배경 지식 활성화

(1) 연상하기

- 연상이란 하나의 관념이 다른 어떤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 작용이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게 되고 교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 정도를 점검할 수 있다. 자유롭게 연상하는 활동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자유 연상 다음에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왜 그런 내용을 연상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하도록 한다.

① 자유 연상하기

- 연상하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상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유 연상을 유도하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교재 참조)

② 연상되는 단어 말하기

- 글의 핵심적인 단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말해보도록 학습자를 유도한다. 자신이 잘 모르는 단어이더라도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연상되는 대로 말하게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말하는 단어를 칠판에 하나하나 적는다. 학습자가 말하는 어휘를 칠판에 적어 분류하여 본다. 단어를 전혀 의미가 다른 것, 비슷한 것 등으로 분류하여 그 개념의 의미를 구별해서 설명한다. 교사는 이 ‘연상하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배경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학습자의 발표나 표현을 통해서 학습자의 어휘력이나 지적인 능력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교사는 이를 통해 독서에 더 필요한 배경지식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연상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연상한 내용과 제시된 개념이나 구절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며, 제시된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기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게 된다. 학습자가 연상되는 단어를 말할 때 연상확장을 돕기 위해 이유를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예측하기

- 제목, 표지 그림, 책의 뒷면,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추측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자유롭게 ‘연상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예측하기’는 자신의 경험과 작가가 주는 단서 등을 활용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며 읽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사고하여 읽게 된다. 학습자는 책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과 읽은 후에 알게 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은 예측과 관련된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을 갖추게 할 수 있고 예측을

통해서 사고를 자극하여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3) 질문하기

- ‘질문하기’는 읽기 전뿐 아니라 읽는 도중이나 읽은 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읽기 전에 교사가 적절한 질문을 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읽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과 새롭게 들어온 정보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 교사는 학습자들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며 학생들의 배경지식 정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질문을 통해 읽기 자료에 대한 단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 읽기 전에 하는 질문을 통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미리 소개하여 학생을 자극할 수 있으며 제시된 질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활동이 반복되면 학습자는 교사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양질의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바른 독서의 방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0강. 독서 중 활동

1. 질문하기

1) 간단한 질문하기

- 학생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책을 읽으면서 질문과 보기를 기억한다. 그리고 적절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반응을 보인다.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읽게 한 다음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을 취하는 방식은 학생들은 단지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게 한다. 학습자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혼자서 어떠한 글이든 깊이 있게 읽어 내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 이런 점에서 보면 교사가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학습자가 실제로 글을 읽는 상황과는 다르며, 학습자 혼자 글과 대면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 실제적인 읽기 상황이다.
- 실제로 글을 읽는 상황에서 글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역할은 교사가 아닌 학습자여야 한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한 질문을 하며 글을 읽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가 바로 능숙한 독자이다.

2)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

(1) 교사의 발문

-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내용이었나?’ 등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하도록 요구하는 발문이어야 한다.

(2) 단계적 도입-단계적 철수

- 처음부터 스스로 질문하면서 글을 읽으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학생들이 잘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글을 읽기 전이나 혹은 글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는지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범을 통해 충분히 숙달된 다음에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하도록 교사는 빠져 나온다.

(3) 유도 방법

- 스스로 질문하는 요령을 터득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는 방식이다. 물론 여기에서 질문이란 상대방에게 답을 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질문이다. 교사는 “나는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가 궁금한데, 너는 뭐가 궁금하니?”와 같이 먼저 궁금한 점을 이야기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4) 질문만으로 공부하기

- 글을 읽은 다음에 학습자가 질문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하고 설명한다. 학습자들이 질문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런 다음 평가를 할 때,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모두 문제로 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했는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5) 교사의 방문

- 질문은 그 질문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가 만든 질문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하고, 사실이 그런지 확인하게 한다.

- ① 책에 있는 것
- ② 행간에 있는 것
- ③ 머릿속에 있는 것

3) 예측을 위한 질문하기

- 능숙한 독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예측하는 가설을 세운다. 이어질 내용에 대한 가설이란 단어 수준일 수도 있고, 문장 수준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뒤에 이어질 전체 내용일 수도 있다.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나름으로 글 전체의 구도를 가정하고 이미 읽은 내용 혹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능동적인 읽기활동이다.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 예측하도록 고무시킬 때에는 특수하고 지나치게 계획된 절차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우발적이고 비형식적이고 평범한 일상적 상황에서 예측하도록 고무 받아야 한다.

4) 이야기 형태의 글을 예측하는 방법

- 이야기 형태의 글을 읽을 때 예측을 이끄는 방법이 가능한 질문들

인물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이 이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들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상황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짐작하는가?
주제 표시어	‘그림을 보아라.’ ‘제목을 보아라.’ 등과 여러 제시어들은 다음에 이어질 사건들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갈래	이것이 우화로써 주어졌을 때, 끝에 결말이 어떻게 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야기 문법	한 이야기 속에서 다음에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이어질 것으로 짐작 되는가?

- 논픽션 작품을 읽을 때 예측을 이끄는 방법이 가능한 질문들

주제	어떤 내용이 진술될 것인지에 관해서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X를 알고 있는가?
인과성 조직	글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다음에 무엇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가?
주제 표시어	‘부제를 보아라.’ ‘표를 보아라.’ ‘그림을 보아라.’ 등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때, 작가가 무엇을 진술하고 예측하는가?
작가의 목적	작가는 왜 이 글을 썼는가? 이것은 다음에 오게 될 것에 관한 무엇을 말해 주는가?

2. 어휘지도

1) 어휘

- 언어의 기본 재료인 낱말들을 우리는 흔히 ‘어휘’라고 말한다.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집합이라고 정의된다. 어휘력은 어휘를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 즉, 말 그대로 어휘에 대한 총체적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휘는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글에 제시된 어휘는 글의 난이도와 직접 관련되며, 그것에 대한 독자의 배경지식은 지속적으로 독해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 어휘지도의 일차적인 목표는 어휘력의 신장에 있고, 이는 독해력의 신장을 포괄하는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진다. 읽기는 텍스트에 쓰인 언어로부터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단어를 인식하는 기초 단계 없이는 읽기가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휘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할 때는 읽을 텍스트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지도하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많으므로 교사는 최대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언어를 선정해 지도하도록 한다.

- 어휘를 선정할 때, 그 어휘가 학습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가르쳐야 하는 어휘인가,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선택·결정할 필요가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 의미가 있는 하나의 커다란 덩이를 만들기 때문에 독서 교육에 관한 여러 논쟁에도 어휘지식이 필수적이다.

2) 어휘지도

(1) 경제어휘지도

- 한 텍스트를 학습하기 전에 그 텍스트에 나오는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중요한 핵심단어를 예습하여 텍스트의 내용 파악을 쉽게 하는 전략이다. 새로운 단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독서 전 활동으로 지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한 작품을 읽기 전에 필요한 어휘의 목록을 준다. 학습자는 어휘에 대한 지식 정도를 ○, △, X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② 학습자는 그들이 아는 정의를 단어로 주고 문장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읽기 전 어휘 목록 평가하기

◎ 지시: 단어의 목록을 보고, 아는 정도에 따라 다음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하십시오.

◎ 이름:

○: 알고 있는 단어이다.

△: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단어이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

X: 전혀 생소한 단어이다.

구성하다. () 요충지 () 공인(工人) ()

역사(役事) () 기거 () 위용 ()

주춧돌 () 순례 () 유대감 ()

(2) 어휘카드

- 교사는 어휘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한 핵심어휘를 학생들이 책을 읽기 전에 제시한다. 때로는 학습자들과 함께 텍스트 전체를 훑어보면서 중요한 어휘를 선정하거나, 모르는 어휘를 선정한다. 학습자들은 각자 문맥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린다. 이때 정의가 불안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사전이나 용어 해설집을 찾아 참조한다. 학습자와 교사는 문맥을 이용해 추측한 내용과 사전적 정의를 참고로 토의한 후 최종적으로 그 뜻을 결정한다. 학습자들은 공책이나 어휘카드에 합의된 어휘를 적는다. 이 어휘 목록들은 한꺼번에 모아 퀴즈를 내거나 테스트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이때 동의어와 반의어를 같이 알아두면 단어를 기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한 어휘의 복합적인 의미 이해 향상을 위해 다의어가 사용된 여러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각각의 문장에서 다의어가 지닌 뜻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3) 문맥 단서 활용하기

-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문단을 읽기 전에 모든 단어를 다 알 필요는 없다. 새로운 단어의 의미는 문맥 안에서 추론할 수 있다. 어쩌면 문맥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어휘 전략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맥 단서를 사용하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일상적인 읽기에서 그에 적합한 사례를 발견하는 것이다.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는 의미 있는 문맥과 상황에서 이해하고 배운다면 단어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사용할 것이다.

▶ 문맥 단서 사용 지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습자에게 글을 읽으면서 낯선 단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하고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때 이용되는 방법은 사전사용, 구조분석, 문맥활용이 있다. 이 방법 가운데 나중 것으로 갈수록 읽기 과제의 해결이 효과적이다.

② 학습자에게 좀 더 효율적인 읽기를 하게 하려고 단어의 의미를 짐작해 낼 수 있는 문맥 활용의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 단어의 의미를 어렵히는 문맥활용 방법

유의어	‘~와, ~과, 또는’ 등으로 연결된다.
반의어	‘~나, ~지만, 그러나’ 등으로 연결된다.
대조	앞에 표현한 부분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 준다. ‘~와 달리, 차라리, 반면에’ 등이 사용된다.
직접묘사	필자가 독자를 위해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한다.
원인-결과	표현에 대한 이유나 결과를 제시한다. ‘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의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언어경험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단어를 이해하도록 한다.

21장. 독서 후 활동 1

1. 글쓰기로 표현하는 방법

○ ‘독후감 쓰기’나 ‘독후감 제대로 읽기’가 뒷전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독서교육에 있어서 ‘독후감’은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표현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독서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이라면 무엇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독후감 쓰기’가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백형식의 고전적인 방법의 독후감보다는 도입한 다양한 방법의 독후감 쓰기를 통해 책의 내용과 학생들의 경험과 생각을 접목해 도덕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글쓰기에 접근해야 한다.

1) 책 속의 주인공과 인터뷰하기

(1) 방법

- 책 속의 궁금한 사실이나 내용 파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등장인물이나 작가에게 묻고 싶은 말과 예상되는 대답을 적어보는 활동으로 작품의 작가나 인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가상적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다. 책을 읽고 작가나 인물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답을 적어봄으로써 등장인물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

(2) 효과

- 학생들은 자신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되면서 동시에 인터뷰하는 대상인 작가나 작품 인물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뷰 문항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은 작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참고 자료의 학습을 통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 등도 미리 탐구하여 작품의 주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뷰는 작가와 작품의 이해를 돕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독서 활동의 친화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활동이다.

2) 광고문으로 표현하기

(1) 방법

- 책 표지 그리기 및 책 광고하기는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광고를 통해 독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들고 앞에 나가서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여러 번 줘야 한다. 하루에 한 명이 한 권씩 소개하는 시간을 꾸준히 마련해 주면 좋다. 책 줄거리에 대한 3분 말하기를 한 다음에 왜 이 책을 권하는지 까닭을 말하게 한다. 또 권할 수 없는 책은 그 책이 왜 나쁜지 까닭을 말하도록 한다.

(2) 효과

- 책을 읽고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친구에게 광고로 알려 주거나 책에 흥미가 없던 친구에게 마음에 쏙 드는 광고를 만들기 위하여 책을 읽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떠올린 후 어떻게 광고로 나타낼 것인가 구상하고 광고에 들어갈 문안을 배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책의 긍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

3) 독서엽서로 표현하기

(1) 방법

-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정한 후 소개하는 글을 쓰는 활동이다. 동화나라의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엽서로 표현하는 활동, 등장인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하기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2) 효과

-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감명 깊게 느낀 책의 내용을 독서 우편엽서를 통하여 친구에게 소개하고 학생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전하고 싶은 친구의 수준과 상태에 맞게 책을 소개할 수 있고 친구 사이의 친밀감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활동이다.

4) 사람 찾기 광고로 표현하기

(1) 방법

- 주인공의 특징을 알아보고 주인공을 찾는 광고 전단지 만들면서 주인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이다. 주인공에 대한 애착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독후 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

(2) 효과

- 주인공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하고 주인공에 대한 장점이나 특징 등을 소개하는 설정은 주인공에 대한 애착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흥미 있는 활동이다. 또 광고문을 보는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책의 소개에 집중하여서 책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켰고 이미 책을 읽은 학생들은 빠뜨린 것들을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

5)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1) 방법

- 책 속 주인공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인공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편지형식으로 쓰는 활동이다.

(2) 효과

- 앞의 독서 활동들로 독서 후 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진 학생들은 단편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을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다. 책 속의 등장인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일과 주인공의 일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알아 가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다.

6) 책 속 주인공 되어보기

(1) 방법

- 자신이 직접 책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바꾸며 써보면서 개작(改作)을 통한 독서 감상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2) 효과

-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주인공의 역할과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알고 독서 활동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7) 뒷이야기 꾸미기

(1) 방법

- 작품 개작이란 작품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고쳐서 다시 쓰는 활동이다. 기존의 작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 후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거나 끝부분을 다르게 바꾸어보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서 독서 후 알고 있는 결말을 다르게 맺어봄으로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

(2) 효과

- 뒷이야기 꾸미기는 사건이 완결되지 않고 끝나는 이야기나 작품일 경우 학생이 자기 나름의 결말을 상상하고 뒷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써 보는 독후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독서 흥미를 유발함은 물론 자신이 생각한 내용의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바꿈으로써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총 동원해 결말 부분에서 획기적인 내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8) 작가에게 편지쓰기

(1) 방법

-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작품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마음이 되어 작가에게 하고 싶은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적거나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작가에게 편지 형식으로 쓰는 활동이다.

(2) 효과

- 책 속의 이야기를 구상하여 만들어 낸 작가에게 학생들은 이야기의 진행방향과 아쉬운 점 혹은 반전이 큰 이야기의 결말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거나 공감하는 부분을 말하면서 책 속의 주인공의 심정이 되거나 진행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라고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독서 활동을 하는 데 효과가 있다.

9) 독서일기 쓰기

(1) 방법

-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작품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되어 일기 형식으로 적거나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편지형식으로 쓸 수 있다. 일기 형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면 생각과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본받아야 할 점도 쉽게 알 수 있다.

(2) 효과

- 일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라고 한다면 독서 일기야 말로 남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일과 책 속의 일을 연관 지어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야기 일 것이다. 학생들은 앞의 여러 가지 학습지를 통한 활동을 거치면서 책 속의 사건과 자신의 일을 자연스럽게 연관 지으면서 자신의 일을 객관화 시켜서 펼쳐가면서 또 다른 책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성찰도 이루어지고 있다.

22장. 독서 후 활동 2

1. 그리기로 표현하는 방법

○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마음속에 시나리오나 그림을 만들 때 집중력은 증가하게 된다. 나이가 더 어린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그려보기를 한다. 힘겹게 살아가거나 고난을 겪는 장면에서 종종 그려보기를 한다. 논픽션을 읽을 때 마음 속 이미지를 만들도록 가르치는 것은 학생이 잠시 동안 내용에 대해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이러한 활동은 읽기만 하는 소극적 수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작 체험을 통해 적극적인 표현과 창작의 단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고 개연성이 확보된 이야기를 직접 전개해 나감으로써 흥미를 키우고 책의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활동을 해나가는 동안 도덕성을 확산시켜나 갈 수 있다.

1) 선물을 드릴게요.

(1) 방법

- 책을 읽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 찾은 다음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등장인물이 필요한 물건이나 상황을 만들어 주는 적극적인 독후 활동으로 책의 내용이나 인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활동이다.

(2) 효과

- 책의 내용을 읽고 적극적으로 책 속의 내용으로 개입하여 자신이 도와줄 일과 물건을 찾아내고 책 속으로 몰입한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책 속의 주인공이나 상황을 해결해주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활동으로 학생들의 도덕성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다.

2) 독서열차로 표현하기

(1) 방법

- 책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표지 꾸미기, 기억에 남는 말, 책을 읽고 난 느낌, 주인공 모습 등을 기차모양의 칸에 연결하여 나타내어서 책의 내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독서활동이다.

(2) 효과

- 책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표지 꾸미기, 기억에 남는 말, 책을 읽고 난 느낌, 주인공 모습 그리기 등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효과적인 독서활동이다.

3) 만화로 표현하기

(1) 방법

-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주제 등을 만화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만화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글과 함께 구성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개성과 취미를 살리면서 독서 욕구를 새롭게 일구어내는 효과가 있다. 등장인물의 마음이 사건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말 주머니의 글과 함께 만화로 나타낸다.

(2) 효과

- 만화는 그림과 문자의 혼합이라는 특징 때문에 내용 이해가 쉬워 학생들에게 관심이 대단히 높다. 학생들 중에는 만화에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학생들이 독서 감상 내용을 만화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취미를 살릴 수 있고, 그 흥미로 인해 독서 동기가 확산되기도 한다. 나아가 그 만화를 보는 주변 학생들에게도 독서의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독서활동이다.

4) 부채로 만들기

(1) 방법

- 등장인물의 얼굴이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부채 모양을 완성한다. 코팅하여 예쁜 부채나 책받침으로 만들 수 도 있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습활동이다.

(2) 효과

- 그림 위주의 학습지와 같이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려보기를 하는 것은 같으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더 가까이 두고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책 속의 주인공이나 내용의 감동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어서 책의 감명을 더 오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학습활동이다.

5) 바뀐 그림 찾기로 표현하기

(1) 방법

- 바뀐 그림 찾기는 학생들이 즐겨하는 활동으로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림 속의 바뀐 부분도 함께 그리는 방법으로 인상 깊은 장면을 재현해내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바뀐 장면을 그리면서 책 속의 내용의 변화도 자신의 생각을 가미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독서활동이다.

(2) 효과

- 바뀐 그림 찾기는 책 속의 감동적인 장면을 찾아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장점 이외에도 책의 내용을 학생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장면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적극적인 감상을 통하여 창작을 해나가는 기초가 될 수 있는 흥미 있는 독서활동이다. 책 속으로 독자가 적극 개입하여 은연중에 지금 자신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 바뀐 그림 찾기를 하면서 같은 책을 읽은 학생들 끼리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활동이다.

6) 숨은 그림 찾기

(1) 방법

- 독서 후 인상적인 장면을 한 장면으로 그리고 숨은 그림을 그 안에 그린다. 그림을 그린 아래 부분에는 간단한 내용을 적어두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린 숨은

그림을 주고 찾기를 한다. 타인과의 독서동기를 공유하고 유발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 효과

- 숨은 그림 찾기는 바뀐 장면 찾기처럼 책 속의 감동적인 장면을 찾아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장점 이외에도 책의 내용을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림 속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창의성도 기르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감상을 통하여 창작을 해나가는 기초가 되는 흥미 있는 학습활동으로, ‘선물을 드릴게요.’처럼 책 속의 등장인물에게 필요한 물건을 숨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학생들의 도덕성을 기르는 데에도 효과적인 학습활동이다.

7) 얼굴표정 그리기로 표현하기

(1) 방법

- 등장인물이 한 일과 생각이 변해가는 모습을 얼굴표정으로 나타내는 활동으로 상황에 따라 바뀐 얼굴표정을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책의 줄거리의 변화와 인과관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학습활동이다.

(2) 효과

-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이 변해가는 모습을 얼굴표정으로 나타내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내고 인물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 가는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8) 그림으로 나타내기

(1) 방법

- 책을 읽는 가운데 재미있거나 감동을 받은 장면을 중심으로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리거나 책을 다 읽고 난 뒤 느낌을 그림으로 그린다. 글로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상상한 장면을 형상화 시키는 학습활동이다.

(2) 효과

- 책 속의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단순히 독서 감상문을 쓰는 전 단계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통하여 책 속의 내용이 그림 속에서 시각화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표현된 책 속의 내용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다.

9) 책 표지 만들기

(1) 방법

- 책을 읽는 가운데 재미있거나 감동을 받은 장면을 중심으로 읽고 난 뒤의 주제 및 느낌이 잘 드러나게 책표지를 만드는 학습활동이다.

(2) 효과

- 책의 표지는 책의 얼굴로 전체적인 책에 대한 이미지 등 책의 모든 것을 전달하므로 책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에 대한 명쾌한 주제가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를 고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민이 시작되고 단순히 미적인 표현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찾고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학습활동을 이루어지게 한다.

10) 광고그림으로 나타내기

(1) 방법

- 광고그림으로 나타내기는 광고할 장면을 떠올려 글과 그림을 간단하게 꾸미기는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책의 주제, 하고 싶은 말, 책의 내용을 찾아내어 되어 책의 내용에 저절로 동화되어가게 하는 활동이다.

(2) 효과

- 광고는 남을 설득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내용을 찾아내야 하므로 책의 주제에 접근함은 물론이고 책의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학생자신의 입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도덕적인 내용의 도서인 경우 학습활동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영역을 두루 포함하는 매우 효과적인 학습활동이다.

11) 홈쇼핑 광고 장면으로 나타내기

(1) 방법

- 적극적으로 책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으로 좋은 점과 그 이유, 감동적인 부분을 골라서 광고할 글과 그림을 간단하게 꾸미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활동이다.

(2) 효과

- 가정에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광고하는 장면을 보거나 광고하는 물건을 부모님과 구매한 적이 한두 번씩은 있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책을 홈쇼핑에 광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설정이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책의 주제에 대하여 남을 설득하는 과정은 책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이며 느낀 감동을 생생하게 남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라서 아주 적절하게 전달하는 문구를 많이 찾아내고 있다.

23강. 도서선정

1. 독서지도와 도서선정

1) 양서와 적서

(1) 양서

- 양서란 학생들이 읽어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 유익한 책이며, 적서란 해당 학년의 교과내용과 수준에 맞는 책을 말한다. 양서의 조건으로는 학생들이 독서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이해성, 흥미성, 예술성, 교육성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① 이해성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는 읽어서 알기 쉬운 것이라야 한다는 특성이다.
 - 낱말 수준, 글의 구성 면에서 알기 쉬워야 하며 글의 내용이 어린이 생활과 친근해야 하고 주제가 어린이의 사고 수준 범위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② 흥미성이란 도서가 어린이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예술성이란 어린이 도서가 갖는 예술적 가치를 가리킨다.
 - 도서가 어린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글의 구성 면에서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도서의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한다.
 - 하지만 지나치게 교훈적인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적서

- 적서의 조건으로는 초등학생이 읽는 도서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부합되어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책의 지질과 표지의 질이 우수하고 견고하며, 삽화가 선명하고 알맞은 낱말로 되어 있고, 크기가 너무 크거나 두껍지 않아야 한다.

- ① 저학년 때 책 읽기가 습관으로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읽기 어려운 명작이나 명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흥미 위주로 쓰인 명랑 소설이나 괴기 소설 등 쉽게 읽혀지는 책을 선호한다.
- ② 중학년 이상이 되면 개개인의 독서 능력에 따른 수준 차이가 나타나서 책 읽기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독서량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 저학년 때 읽어야 할 수준의 책들을 읽은 학생들은 세계명작동화 전집을 읽히도록 한다. 30권에서 40권 분량의 명작 전집류를 한 달에 두 권 정도 읽게 하는 동시에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전을 다시 한 번 읽도록 권한다.
- ③ 고학년 때는 세계명작과 병행하여 역사서를 읽도록 한다.
 - 만화 한국사 등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전집을 읽도록 한다. 세계 역사 전집을 읽는 것도 좋다. 세계 역사도 만화로 알기 쉽게 엮어진 책들이 많다. 소설이나 동화처럼 문맥 속에 숨겨진 비유적 표현이 많은 책은 만화로 된 것보다는 번역이 잘 된 책을 읽는 것이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나 과학 책 등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과학적 상식 등 지식을 전하는 책은 만화로 읽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글자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그림을 곁들이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훨씬 흥미롭게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서자료 선택의 원리

- ①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생기를 주는 자료

- ② 어린이가 독서와 책을 좋아하도록 이끄는 자료
- ③ 어린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자료
- ④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과 창조력을 자극하고 기르는 자료
- ⑤ 정신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자료
- ⑥ 어린이의 인격적 정보요구를 만족시키는 자료
- ⑦ 도덕적·사회적 가치의 광범위한 인식을 도와주는 자료

3) 도서선정 기준 - 일반적인 면

- 일반적인 면에서 저자 요인, 출판요인, 독자의 내적 요인 등을 제시하고 도서선정 기준을 보편적 기준을 갖고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년별로 어린이의 독서발달단계와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위의 기준에 따르면 도서를 선정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도서 선택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에 알맞은 책 • 학교 공부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 지은이가 분명하고 그 방면의 전문가가 쓴 책 • 글씨, 그림 인쇄가 선명한 책 • 문장이 알기 쉽고 내용과 분량이 적당한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본이 잘 된 책 • 최근에 발행한 책 • 권위 있는 출판사에 의해 만들어진 책 • 전문가의 추천이나 필독도서 및 선정 도서 목록에 있는 책 • 어린이의 연령이나 독서 경향을 고려해 수준에 맞는 책

4) 도서선정 기준 - 내용적인 면

-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학년에 맞는 글의 주제나 소재, 구성요인, 어휘 수준, 주인공과 등장인물 요인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교육적이거나 흥미를 줄 수 있는 도서만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서 선택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인간의 평등과 평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책 • 자료의 내용이 독자의 관심사와 지식을 넓혀주는 책 • 언어의 사용이 바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것 •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건전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책

2. 필독도서

1) 필독도서의 정의

-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책들 중에서 각 교육청 및 학교와 기타 독서 관련 단체에서는 발달 단계와 독서 흥미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 및 교과 연계를 고려한 도서를 모아 놓은 것을 필독 도서, 정독 도서, 선정 도서, 추천 도서, 권장 도서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다.

▶ 제시한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필독 도서란 인생에 있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누구나 꼭 한번은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한번은 꼭 읽어야 할 도서 또는 읽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도서라고 볼 수 있다.
- ② 정독 도서는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살피어 읽어야 할 책 또는 내용과 형식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읽는 책을 말한다.
 - 즉, 책을 통독을 하기 보다는 책에 담긴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 과제나 생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천해야 하므로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이 필요한 도서이다.
- ③ 선정 도서는 출판되는 많은 책들 가운데서 골라 정한 것이다.
 - 즉, 학습, 여가선용, 정서 함양 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서 뽑아 놓은 도서라 할 수 있다.
- ④ 추천 도서는 많은 책들 중에서 좋거나 알맞다고 생각되거나 어떤 조건에 적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권하여 주는 책이다.
 - 즉, 학생들에게는 성장과 발달 단계에 알맞고 독서 흥미를 고려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하거나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권장 도서는 권하여 장려하는 책으로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읽을 것을 권하고 장려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 즉,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기보다 그 책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읽기를 바라는 책이다.

2) 필독도서 목록의 개선 방향

- ① 객관적인 필독 도서의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② 발달 단계 및 흥미, 독서 능력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 ③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현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⑤ 교육과정 및 교과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 ⑥ 독서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개 독서가 가능해야 한다.
- ⑦ 동일 주제에 대한 같은 책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⑧ 문학과 비문학, 국내 문학과 외국 문학, 고전 소설과 신간 소설, 남녀 주인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비율로 필독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 ⑨ 필독 도서 선정의 일정한 주기가 있어야 한다.
- ⑩ 상업성을 탈피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 ⑪ 가격 및 출판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24강. 독서교육계획안 작성법

1. 독서교육계획

1) 독서교육계획의 의의

(1) 독서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 지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도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교 전체로서의 독서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년별 등의 발달단계에 따른 목표, 교과 및 영역별 목표, 이용할 독서 자료에 따른 목표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측면의 목표들과 독서교육의 목표는 구체화, 세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도계획은 각각의 목표를 지도의 장에 따라 명확하게 수립하고 지도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만 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

(2) 독서교육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 독서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교육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해 두어야 한다. 교육내용을 발달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정선(精選)하여 배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의 성과나 효과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교육계획은 교육내용의 설정과 배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독서 자료를 명시한다.

- 독서 자료는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여 독서교육의 목표에 알맞은 자료를 선정한 다음 교육계획 속에 명시하여 계획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도의 장을 설정한다.

- 언제, 어디서 지도할 것인가 하는 지도의 장을 독서교육계획 속에 명확하게 설정해 두어야만 소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 독서교육의 성과는 지도자의 능력, 의욕, 협력체제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교육의 협력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2) 독서교육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1)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상매체와 전자매체에 경도되어 인쇄매체를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독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마저 낮아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 낮은 수준의 독서를 높은 수준의 독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오락적 독서도 의미가 있지만 건전한 독서를 통해 사고하고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해 계획적 사고력을 길러 주는 독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3) 교과학습에 도움이 되는 독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교과서 중심의 학습만으로는 학습자 자신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나 학습을 위한 학습활동을 추가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독서교육계획의 구성

1) 독서교육계획 수립 시 구성요소

- ① 지도의 대상
 - 학년, 연령 단계, 학급이나 그룹의 명칭, 교육대상의 특징 등
- ② 독서실태
 - 아동과 학생의 독서 실태나 독서경향에 대한 관찰이나 조사자료 등
- ③ 지도의 목적
 - 독서교육의 구체적 목적
- ④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 학교의 경우는 교과, 특별활동 등 교육과정상의 위치 기술
- ⑤ 지도의 일시
 - 월, 주, 몇 교시 등 지도의 시각과 시간
- ⑥ 지도의 장소
 - 학급, 학교도서관, 아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 ⑦ 독서 자료
 - 사용할 도서, 도서의 주제와 장르, 서지사항 등
- ⑧ 지도방법
 - 스토리텔링, 북토크, 그림연극 이용, 슬라이드 이용, OHP 이용, 녹음테이프 이용, 개별지도, 독서회 개최 등
- ⑨ 지도자
 -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사서교사, 사서 등
- ⑩ 지도자를 위한 참고자료
 - 독서교육이나 학교도서관 이용지도를 위한 연구자료, 아동이나 학생용 교재, 기타 참고자료나 정보 등
- ⑪ 아동과 학생의 독서능력이나 독서흥미 발달의 특징 기술
 - 독서지도에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계획표에 기록해 두는 것은 아동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된다.
- ⑫ 기타
 - 한 시간의 지도를 위하여 교사가 준비해야 할 자료나 지도상 유의사항을 기록한다.

2) 가치

(1) 주제 정하기

- 학년, 목표, 지도 내용, 지도 시간, 독서 자료와 연관 지어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주제명(단원명)은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다. 작품 중심 단원 설정과 목표 중심 단원 설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목표 정하기

- 학년별 발달을 기초로 월별 목표, 주별 목표, 교과별·영역별 목표, 이용할 독서 자료에 대한 목표를 세운다. 이 중 연간계획은 장기간의 독서지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독서량, 영역 확장, 독서치료 목적, 표현하기 목적, 어휘력 목적, 창의적 독서지도 등에 따라 목표를 정한다. 또한 아동의 관심사와 학년별 흥미도, 도서의 형태, 계절적 월별 특성, 교과과정, 특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한다.

(3) 배당 시간 정하기

- 연간, 월간, 주간에 따라 총 지도 시간을 정하고 이용할 독서 자료의 수, 다른 교과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단원별(주제별)로 시간을 배당한다. 보통 주당 30분~1시간 정도의 독서 시간을 계획하고 활동(NIE를 활용한 독서, 토론을 통한 독서, 역할극을 통한 독서, 등장인물 인터뷰를 통한 독서 등)에 따라 시간을 조금 늘려도 된다.

(4) 내용 구성 정하기

-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지도하는 사람보다 아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동의 성향과 관심사,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조사하고 자료를 기록해 두고 활용한다. 독서 수업 형태에 따라 지도 내용이 표현하기에 관한 것인지 읽기 수업에 관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5) 독서활동 정하기

- 학년별, 주제별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도 목표에 알맞은 자료와 활동 방법을 명시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학년별 아동 발달 특성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다.

(6) 자료 선택하기

- 독서지도의 효과는 설정된 목표에 맞는 자료의 선택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표에 맞는 자료는 어떤 것이 좋은지, 지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료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 좋고 서로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찾아본다.

(7) 차시 예고 및 주의할 점

- 독서지도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주제별로 다른 자료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도상 유의할 점을 적어 둔다. 독서지도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범하기 쉬운 것에 대한 주의를 명시하고 다른 자료와의 연계성, 지도상 유의점을 기록한다. 다음 수업을 위해 준비할 것과 참고문헌을 적고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활용한다.

3. 독서교육계획의 실제

1) 지도 용

- 일반적으로 지도 내용은 도입, 전개, 정리, 차시 예고, 참고 도서 제시 순서로 진행한다.

① 도입 부분

-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흥미를 유발하도록 간단한 게임과 발문하기, 시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계획한다.

② 전개 부분

-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 책 내용 요약하기,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등 구체적 활동을 통해 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작업이다.

③ 정리 부분

- 학습 내용의 전달과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정한다.

④ 차시 예고

- 다음 독서 수업을 안내하고 읽어 올 책 제목과 조사해 올 사항을 적는다.

⑤ 참고 도서

- 수업 내용과 연관된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단계별 활동

(1) 1학년

- 비교적 독서 편차가 큰 학령기에 해당한다.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독서 능력이 떨어지는(행동발달장애) 아동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2년차 수준에 해당하는 책을 선정한다. 활동으로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책 읽어 주기 등에 중점을 두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창의적 독서 활동을 한다.

(2) 2학년

- 독서 선택 능력이 부족하므로 대화가 많이 들어있는 책, 전래동화 등을 읽고 개념도 그리기, 인물 인터뷰하기, 주인공 이력서 쓰기와 같은 활동을 한다.

(3) 3학년

- 자기 생각이 발달하고 친구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제2성장기에 해당한다. 학습만화,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모험이 담긴 책, 아이들 주변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정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다.

(4) 4학년

- 반항심이 강하여 교훈적이거나 틀에 박힌 이야기를 싫어한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 이야기(예: 왕따, 친구와의 우정 문제, 부모 이혼, 억울한 일) 중심 책이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독서 영역을 넓혀나가는 활동을 계획한다.

(5) 5학년

- 이야기를 좋아한다. 감동을 잘 하고 자기 욕구가 강하다. 자기 스스로 읽고 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 수업 활동을 적용한다. 재미와 창의적인 독서를 하게 한다.

문학적으로 감동을 주는 책을 고른다.

(6) 6학년

-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 시기 아동은 분석력이 있으므로 인물들의 갈등 구조가 들어 있는 것, 사건 전개가 빠른 것, 인물의 심리가 섬세한 것을 좋아한다. 비판력, 모험과 유머가 담긴 책을 선정하고 토론 형식의 수업을 유도한다.